

# 생화학소

★ 63호 ★



아협 발행 439 12 원치

# 맨발

尹石重 詞  
尹允榮 曲

*P*

또 밭을 갈박갈박 건너가는 맨발  
산비탈 빨리빨리 올라가는 맨발  
배고프면 집으로 달려가는 맨발  
신발이 작아 작아 벗어버린 맨발



## 미련한 소

① 이크! 보말을 가져, ② 황!!  
③ 미련한 소 죽었구나!

## 서투른 솜씨

① 흥! 외자가 비둘기, ②어머 한번 할라볼까, 쿡쿡 쿡쿡..... ③ 어쩔꼬? ④ 어찌 저 저 이찌 알겠던가? ⑤ 다시 한번..... ⑥ 허허! 이것을 황씨가 저 비둘기!

# 소년소녀

1949년 12월 1일 발행

63호 12월호

## 차례

- 동요 • 보오보왕왕오년왕 ..... 박영동 (21)
- 동요 • 새 길 데 ..... 이진우 (27)
- 동요 • 물 귀 탈 ..... 권영일 (28)
- 동화 • 빨랫터 이야기 ..... 박동성 (4)
- 소설 • 물 귀 노 재 ..... 정인태 (18)
- 소설 • 소년 길 국 사 ..... 박태일 (30)

- ★ 소년 과 벽 사 ..... 국사립 (26)
- ★ 동요 학 보 기 ..... 박영동 (14)
- ★ 유래의 여말 이야기 ..... 정 김 (18)
- ★ 권길작은 어린이들 ..... 심준성 (18)

### ★ 우리 학교 작품 ★ 개성 만월 학교지 ..... (38)

- 배양호 • 맹달 ..... 윤익중 • 윤익영 (2)
- 박희철은 ..... (17)
- 보미 실학 • 시어지없는 학교야 ..... (18)
- 북두로 산은 울진 두는 걸 ..... (37)
- 이상도화야 ..... (33)
- 세세 각국의 교통기관 ..... (25)
- 그림속담 ..... (25)

### 아름 상라기 문제 (29)

- 그림에기 • 상라기엔 소녀 ..... 정 국 (8)
- 동화 • 단담은 활이바사 ..... (2)
- 동화 • ..... (36) ★ 이차하사 ..... (47)
- 동화 • 보기 ..... (41) ★ 바라들놀이 ..... (40)
- 동화 • 영아리장난감 ..... (40) ★ 예지고그리기 ..... (40)
- 소설 • 상라기 ..... (42)
- 간필고나서 ..... (42)

- ★ 그림 그리신 분 ★  
정 원중 • 김 용환 • 김 가환  
김 의환 • 조 병택 • 최 수섭  
정철 • 이 인성



그림 • 김 용환

# 별들의 이야기

박복성

그것은 몹시 추운 겨울 밤이었습니다. 아주히 멀고 먼 하늘에 높이 떠 있는 별들이, 어느날 밤, 지구를 내려다 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넓은 하늘에 흩어져 있는 별들은, 그다지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춥고 추운 겨울 밤에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그리 불지 않는 때면, 그들은 소곤소곤 얘기를 추고 받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용하고 밝게 개한 밤하늘이, 별들에게는 가장 좋으니깐요.

“지구 위가 몹시 조용한것이 꽤 추운 모양이지!”

“아하 지금쯤은 누구나 일어나 있는 사람은 없을거야. 나무도 떨면서 자고, 산에 사는 짐승들도 굴 속에 들어가서 잘 것이고, 물 속의 고기들도 바위 틈에 숨어 있고,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모두 쉬고 있을거야.”

“그런 얘기가 누가 모른다구

그런 얘기를 하니.”

“달님 아저씨가 벌써 서산쪽으로 넘어 가시려구 하는데, 다른 얘기나 해라 애.”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때 지금까지 동무들의 얘기를 듣고 있던 꼬마라는 별명을 듣는 별 하나가, 동무들 앞으로 뻗어나 갔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누가 쉬지 않고 일어나 있어, 나중에 별소릴 다 들겠네.”

“아닙니다. 나는 언젠가 어떤 가난한 집을 자세히 들여다본 일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일이 눈 앞에 선합니다.”

“그럼 어서 얘길 해보려므나.”

“네!”

하면서 꼬마별은 조용조용 다 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골이 아니고 어느 조그마한 도시에서 꼬마별이 본

이야기입니다. “춥춥춥 춥춥 춥춥 춥춥이며 으리으리한 개와길들이 있는 곳에서, 아주 멀리멀리 떨어진 송락정같은 송기종기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식이와 분히, 그리고 어머니, 분히 동생 영희, 이렇게 네 식구가 사는 식이네 집 이야기입니다.”

식이 아저씨는 분히 동생 영희가 낳던 때에 본일이 가신다고 집을 나가신채 아직 돌아오시지 않고, 영희가 벌써 네살이니까 사년이나 되었습시다. 그동안 어머니는 어떤 자식들을 데리고 사실 수가 없어서 슬라느낌이며 슬랄때 가지를 하시서, 그날 그날 네 식구가 죽어나마 굶지 않고 먹게 되었습시다. 그런데 지난 가을부터 영희가 별안간 앓기 시작하였습시다. 어머니는 그야말로 밤잠을 전혀 취시지도 못하고 영희 병을 간호하셨지만, 영희 병은 지금까지 낫질 않았습시다.

도리어 저물이 깊어 갈수록 영희 병은 더해가는 것 같습시다. 어머니는 꼬장거리며 마른 영희를 끌어안고, 몇번이나 밤을 꼬박 새우시면서 우시었습시다. 식이도 분히도 영희가 불쌍해서 밤을 새워가며 어서어서 영희 병이 낫기를 마음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너희 아저씨가 계시면 얼마

세계 위인의 마지막 말씀 좀 더 밝게 (1832년, 여든 제살이 된 독일의 때시인 쾨레) (가, 숨이 끊어지며 할 때 써진 말씀이다.)

“나 행복을 볼생각 하지겠네.  
그러고 벌써 평원이구 어머  
구 잘못 다졌을걸...”

어머니 뿐 아니라 석이도 분  
희로, 아버지한테 곁에 계시다면  
이렇게 설날도 가난하지 않을  
것이고, 또 영희도 오래오래 명  
을 잡지 않을때까지 하고, 정말  
아버지가 미움까지 하였습니  
다.

정말 아버지는 어디서 영희가  
있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  
제면 사년씩이나 전지 찬장 없

노시람. 너무도  
야속한 아버지  
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석이  
나 분희가 아버  
지가 미움마로  
알다면 필적 뛰  
시면서,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  
라고 드디어 꾸  
중을 하시는 것  
입니다.

“아버지가 영  
희 찾는 것을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  
시겠네. 인제 아버지는 영희  
가 다졌을 되면 오신다고 하  
지 않았네.”

“정말 영희가 다졌을 되면 아  
버지가 오시우?”

“그럼, 오시구 말구.”

“아버지 가실때가 적얼우?”

“그럼 될구 말구, 눈이 많이  
 많이 내리는 곳이란다.”

“꼭 영희가 다졌을 되면 아버  
지가 오시지?”

“그럼, 엄마가 분희에게 저것  
알탈까.”

석이는 어머니와 분희의 새  
기를 끌으면서, 편편천지 영희  
가 더욱 불쌍해져서 가슴이 아  
팠습니다. 아무때도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영희는 이 세상에  
살아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입  
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영희  
명을 고쳐 줄 수 있을까? 알만  
생각해도 어떤 석이 힘으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더욱 가슴만 답답해져서 공연  
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석이는 글리 머리를 숙  
었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어머니의 간  
호도 석이와 분희의 걱정도 소  
용 없이, 어느 날 몹시 추운 날  
밤에 기어이 아버지 오시는 것  
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 사팍아  
닌 다른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밤  
새 씨늘한 영희를 끌어 안고  
우셨습니다. 석이도 분희로 밤  
새도록 영영 소리내어 울었습니  
다. 정말 영희가 불쌍해서, 아버  
지도 못보고 영영 아주 먼나라  
로 간 영희가 불쌍해서, 석이도  
분희도 어머니도 어찌할 줄 모

르고 슬기만 하였습시다.

이튿날부터 어머니는 밤 새도  
꼭 영희 생각을 하시면서 도무  
지 잠을 꾸드시지 못하였습니  
다. 포박이 밤을 새우시는 것이  
인제는 어머니의 버릇처럼 되었  
습니다.

석이나 분희가 아무리 어머니  
를 달래고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쌍한 영희가 보  
고싶어서, 그렇게 영희 생각을  
하시는 어머니를 석이나 분희  
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  
지요.

포마별은 몇  
번이나 목이 깨  
어 말을 끊었다  
가는 또 하고,  
또 끊었다가는  
하고 겨우 여기  
까지 말하고는,  
그 이상 할 수  
없다고 지탄글  
가서 돌아 앉았  
습니다.

수족 들머 많  
아 포마별 얘기  
를 듣고 있던 동  
무 별들도, 찬찬

이나 멍하니 지구 위의 석이네  
집을 찾으려는 뜻이, 눈물자를  
대욱 뻥뻥어리며 말없이 없이  
잠잠했습니다. 누구나 눈에는  
구슬 같은 물방울이 방울방울  
뿜어 있었습시다.

“참 지구 위에는 불쌍한 사람  
두 많지.”

찬찬만에 어떤 별인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지구 위  
에 사는 사람들은 절뚝하면 싸  
우고 또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적 이상하게 생각되  
었습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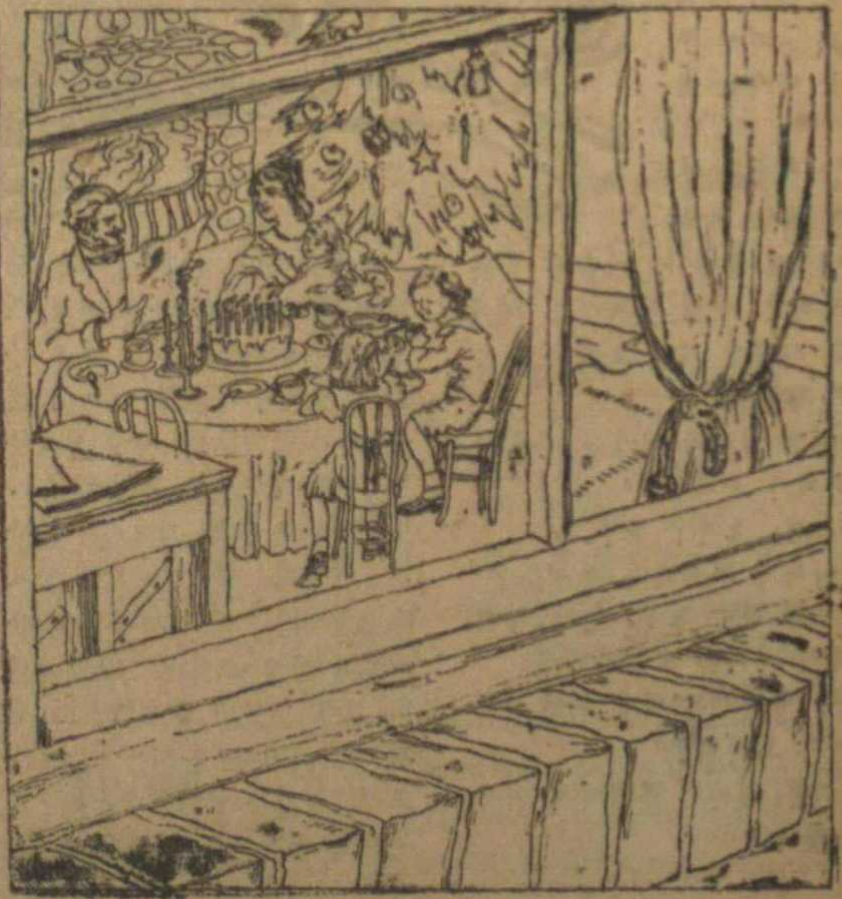


○ 겨울이 깊어지고 눈이 많이 내렸다. 마을은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다니고, 길가에는 눈 쌓인 곳이 많았다. 아이들은 눈 쌓인 곳을 뛰어다니고, 눈사람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겨울을 좋아했다. 특히 아이들은 눈이 내리면 더욱더 좋아했다. 그들은 눈 쌓인 길을 따라 다니고, 눈 쌓인 곳을 뛰어다니고, 눈사람을 만들었다. 이 겨울이 기쁜 겨울이었다. 모두가 즐겁게 겨울을 보냈다.

○ 겨울이 깊어지고 눈이 많이 내렸다. 마을은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다니고, 길가에는 눈 쌓인 곳이 많았다. 아이들은 눈 쌓인 곳을 뛰어다니고, 눈사람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겨울을 좋아했다. 특히 아이들은 눈이 내리면 더욱더 좋아했다. 그들은 눈 쌓인 길을 따라 다니고, 눈 쌓인 곳을 뛰어다니고, 눈사람을 만들었다. 이 겨울이 기쁜 겨울이었다. 모두가 즐겁게 겨울을 보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옳고 있으면 어  
 려 사귀어야지, 저 심한 환자를 만나니 스  
 립자를 신과 같은가고 생각하나 불쾌하스  
 립히 저를 거두고 어디로 도망가버렸지  
 요, 그래 하늘 수 없이 나는 신재이니까 못  
 아 내려가라, 눈에 과분할는지 어디로 갔  
 는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 후에 우리 같이 그인 출  
 습니다, 말해 주는 저물이 기쁘게, 요절한  
 임일인지 아닐부의 정년이 무슨 말이지  
 기 아니라, 그래 마음 있어주세요, 눈물  
 이 저우자우 떨어났잖아, 나는 요절한이  
 나 그 생각에 알아서 슬고 있습니다.

① 신재의 우리와 같은사람을, 이  
 길에서 저길 행하는 신재의 입지 상을  
 사귀지 않음과 보지, 불쾌한 것은 길  
 주부, 신재 같은것이 불고물고고, 길은  
 되고 여배: 환우가 되겠어요, 신재의 나  
 기 10년 정도 - 여가 하고요,

신재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불행한 신재 같은지, 신재의 신재  
 신-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불행한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신재의





① 소리를 듣고 인은 가슴이 울렁  
 울었다. 서고도 후회없이 앉았다. 인은  
 창밖의 푸른 산을 바라보았다. 아까  
 때 같이 맑고 시원한 길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푸른 산을 바라볼 길로  
 돌아가려는, 무서운 아득한 밤의 빛을  
 받아서, 입도 수지 않을 것이다. 또 길로도  
 돌아갈 줄 수는 것은 바랄 없습니다. 시골  
 이따같은 곳이면 구렁이 밟으며, 뱀이  
 뱉어주는 생각도 한 번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하  
 나 그럭저럭 잠이 들었으니, 눈을 뜨면 또  
 아득한 수레의 소리가 들리니, 수레는 창을 울  
 울입니다.

울 아파도 피어도 수는 것은 아플  
 것입니다. 아너 가만히 앉아 있으려나, 창  
 밖의 수레의 소리가, 이 밤을 간을 벗  
 어나 갈라 줍니다. 몸을 바랄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창외 길 끝은  
 아슬아슬이 어둠이 웃는 소리가 겁쟁이들  
 말을 듣, 그 푸른 내시 작은 것이 조용히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잠을 깊어 갔다. 어두운 하  
 일에서는 별빛만이 눈을 깜빡거리며 하늘서  
 안락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침내 소리는 좋은 생각이 배 울었다  
 나, 소리는 곧 성당길에서 성당을 지나  
 거닐어 살아가고 있어 왔습니다. '와' 소  
 리를 따라 성당을 향한 불꽃이 일어났습  
 니다. (계승)







경기도 서해안 선감도(仙甘島)에는 선감학원(仙甘學園)이라는 거리의 부랑고아(浮浪孤兒)를 수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섬은 사면이 약 십리, 인가가 50호 기당 밖에 없는 아주 조그마한 섬이며, 이 학원은 경기도 보건후생국에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10월 25일 이 섬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 때의 우리 일행은, 경기도 보건후생국장 이 장원(李長源) 선생님, 후생과장 김 학묵(金 馥) 선생님, 서울 중앙빙송국 김 광국(金光國) 선생님, 그리고 필자(심 은정), 이렇게 배사람이었습니다. 다음 글은 그 때에 보고 느낀 그대로를 적은 것입니다.

헛지녀 비에 알맞게 젖은 시골 천이 흩어져 있는 나뭇잎을 날리며, 우리를 태운 적프차는 남으로 남으로 가벼울게 달렸습니다. 두 시간만에 수원을 지나고, 거기서 또 몇 시간을 달려서, 선감도가 바로 눈 앞에 보이는 사강나무에 닿은 것은, 해도 기울어는 오후 다섯시 경이었습니다. 활짝도 활짝도 날고 있는 늦은 가을 바닷바람은 흡기도 참니다. 여기서 선감도까지는 조그만 배로; 해지기 전에 넉넉히 건너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에아라 사, 에아라 사" 노젓는 사공들의 숨소리는 가볍게;

이적 배는 바다 한 가운데 떠 있습니다. 조수 관계로 예정보다 늦은 것입니다. 배는 이미 지고 뱃머리에 칠닥어리는 파도 소리만이 유난히 차가울게 들릴 뿐입니다. 선감학원 소년들도 이 바다를 이렇게 건넌것지.....어름과 추위에 쌓인 나는 잠깐 명상에 잠겨 있을 사이에, 이윽고 배는 섬에 닿았습니다. "인제 얼마 안가서 선감학원입니다." 앞에 가시는 김 학묵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묵묵히 따라 갔습니다. 한 10 분쯤 걸어서 언덕을 하

나 넘으니 등뒤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선감학원입니다." 라고 걸 선생님이 가리켜 주시니, 이글 속이라 대강도 알아 볼 수 없습니다. 그걸로 찾아간 곳은 학원 원장 선생님 댁이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선생님 댁에는, 황다게 뽕프론이 어떻게 적었습니다. "안녕히 오세요." "안녕히 오세요." 안에 들어 서자 좋은 히 인사하는 소년! 그도 원아(園兒)의 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지만, 정말 친절하고 공손한 소년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다섯시, 학원에서 울터오는 종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내에게는 좀 일론 시각이지만 원아들은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답니다. 헛이어 "하낮 들, 하낮 들." 우명관 구명 소리가 들리고, "선감학원의 노래"도 들립니다. 우리는 아침을 먹고 나서, 원장 선생님의 안내로 열전(鹽田)을 구경하고 학원으로 갔습니다. 정문 오른 쪽에 "선감학원", 그리고 왼 쪽에 "재부공립

**선감도 부락학교의 수업을**

선감도 부락학교의 수업은...

선감도 부락학교는, 부락으로 나  
 의해서 구별하고 또한 다른 것  
 을 학과 학(學)의 구별에  
 의해서인 부락소년(浮浪少年)  
 117 명을 수용하고 있습  
 니다. 나이는 평균 11 세부의  
 18 세부인데, 50 세 미만의 이  
 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처 부락이냐 되었는가? 부모  
 를 잃어 버렸거나, 또는  
 결혼 없이, 또는 다른 부  
 의 보입을 받고, 어떤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를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할 수  
 없지요. 학부는 차인 학교와 다  
 른 점이 없는데, 우리 그들의  
 계층 농민, 이인, 간단한 수공  
 업 같은 실업교육을 하고 있습  
 니다. 그것은 물론 사회의 나  
 아가지게 필요로 된다고 할 아  
 님아할 수 있게 하자는 의 목  
 적이 있지요. 올해도 벌써 수  
 사람이 취직해 나갔고, 두 사  
 람은 육군 경비대에 들어가 있  
 습니다.

**선감도 부락학교의 수업**

선감도 부락학교의 수업은...

“부락으로 갈 때도  
 처음으로 선생님을  
 뵈어 주면 즐거  
 한 일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  
 나 무엇보다도 어  
 려분이 이 사임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지요. 우  
 리가 아무리 이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고 사회  
 에 내어 보낸것과, 사회 여러  
 분이 그들을 반가워 받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  
 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으니  
 한심한 노릇이지요.”

말을 마치고 원장 선생님은 엄  
 속한 표정을 띠십니다.

때때로는 이날 신문 한 장 인이  
 볼 수 없는 여 학생이 열하는  
 저쪽편 선생님을대져, 무아라 감  
 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는지 몰랐  
 습니다.

**☆ 선감 학원 원장선**

바닷가 자갈들도 우리하구 불구요  
 푸른 하늘 발들도 우리하구 조  
 많기도 하고나 우리들은 뽕무지  
 정다움게 잘지내자 선감학원 형제들.

○

솟는다 붉은 해가 춤을 춘다 바다가,  
 선감도 푸른 섬에 가득 찼다 햇빛이,  
 넓기도 하고나 우리들의 저 바다,  
 잘 배우고 잘 자라라 선감학원 형제들.

(윤 석중 지음)

일제시대로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에, 이 학원에서 갱생(更生)  
 되어 나간 소년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간 후, 소식을 전혀 알  
 수 없는 소년이 많다는 말을 들  
 고, 나는 적이 심망하고 괴롭히  
 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맑으  
 로 내다 보이고, 운동장 가에는  
 몇 송이 코스모스가 환한지름니  
 다. ....저기에 희관과 순실을 만  
 들고, 저기에는 선뜻과 새장울,  
 그리고 뽕밭에는 상록수가 우거  
 지게 하고...이렇게 꾸며 놓으면  
 그들의 마음을 훨씬 부드럽게 모  
 습게 해 줄텐데, 나의 머릿에는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여러 계선 선생  
 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입  
 니다. 그리고 모시실과 우락실과  
 운동기구도 많이 적만해 주고 싶  
 으실 것입니다.

원장 선생님의 안내로 수업중  
 인 1, 2학년 교실로 들어 갔습  
 니다. 교실이 모자라서 한 교실  
 에서 두 학급씩 배우고 있습니다.  
 1, 2 학년을 합쳐서 한 50 명





원아들이 똑같이 파란 양복을 입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어섯! 선생님들이기 정다!”

공손히 경례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은 그들은, 모두 살이 뚱뚱히 쪼르르 찢어지고 귀엽습니다. 그런 표정이 모두를 명랑하게 못하게 하는 것은, 뇌가 잘못 본 탓인지도 모릅니다. 맞지 않게 너무나 양복은 눈이 저절로 어색해 보입니다. 1학년은 국어를, 2학년은 산수란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지으시고, 누님은 마루에서 보기를 합니다. 나는 물을 끓였습니다.”

원아들이 이렇게 쳐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 1학년들이 힘차게 따라 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들에게 맞는 말이냐고 할 수 있을는지…….

“지금 원아들 중에는 국민 학교 6학년 졸업생이 서너명 있습니다.”

하고 설명하시는 부원장. 선생님 말씀은 전부 다들 들었습니다.

다. 국민 학교까지 졸업하고 이따서 이런데 와있게 되었는가? 이상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재계는 공부한 한 자로 못한 소년, 1학년만 마친 소년 등 가지각색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공부한 소년은, 가령 산수는 6학년 실력이 있어도 한글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산수는 6학년 반에서 배우고, 한글은 1학년이나 2학년 반에서 배우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실마다 물어다 보고, 이 말이 사는 어린이들만 따로 가르치는 편 결의 방도 잠깐 물어다 보았습니다. 어느 방이나 밥과 국이 있습니다. 다만 그림 같은 것은 좀더 볼었으면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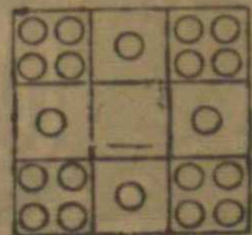
순동장 한 열이든, 식당으로 쓰던 일이 두터워서, 임시로 편막으로 만든 식당이 있습니다. 밥은 하루에 잠복을 조금 씌어서 내놓고, 적당한 분량입니다. 반찬은 거의 그들 자신이 잡은 것이며, 물고기, 또는 채소로 넉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봉조림과 칸의 배급이 나와서 그들을 즐겁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순동장 밑에는 숙사가 두 채 있

습니다. 선생님의 방과도 열여섯이 있습니다. 아무방도 있고 손물도 있는데, 적당 하나 놓여 있지 않은 방 속은, 모두 정돈하고 임시 수용소 같이 너무나 좋습니다. 숙사에서 만난 한 소년의게, 나는 “적당한 사람이 되어라. 할때도 나쁜 마음을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니, 그는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한방 임시 여럿이 정갈하게 보니 자인방이 많이 지어져 되어. 원아들은 술이 열 몇, 한결이 열 몇 개량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경영하는 병원이 있어서, 병란한 일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크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부모를 떠날 때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손길에 지라기는 소년들! 원아를 살살이 돌아 본 우리는, 소주게서 경 심입해 하시는 선생님과 좌 좌변 인사를 하고, 가을 벌레 힘없이 우는 산길을 올라 갔습니다. 갈매기 날으는 넓은 서해바다! 산에 꼭 안긴 선감학원을 내려다 보며 117명 원아들에게 나는 친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를 잘 있거라. 바로고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힘껏 일해라. 그래서 훌륭한 원군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끝)



(41페이지 오학년 그림)



★중국 위에서 사는 사람들★

중국 광둥성 (廣東省)에 있는 광둥 (廣東)시는, 귀도 관을 상과 백운산을 등진 대도시로 인구는 약 100만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광둥은 달리 천성 (仙城), 양청 (羊城) 이라고도 불리우며, 중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외국 무역항 (貿易港)입니다. 그런데도 상해, 천진, 톈주와 함께 중국의 사대항구의 하나입니다.

가로는 깨끗한 아스팔트로 포장 (鋪裝)되었는데, 길의 넓이도 아주 넓으며,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하여 문자 그대로 근거리 화폐한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도 한류엔 옛날식의 시가지가 있어, 길의 넓이가 대단히 좁고, 가게가 꼭 들어서 있어 햇볕을 볼 수 없는 축축하고 음침한 곳이 있습니다. 광둥의 어 들은 아주 더울고 비가 많은 까

때, 조금 큰 가게가 늘어선 거리에는, 모두 이층에 경자좌 (亭子脚) 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이 굉장히 뜨일 때는 벌을 가리는 모 꼴이 피고, 비가 올 때는 비 를 피라는 아주 편리한 것입니다.

광둥은 오래된 도시고로, 유명한 고적들이 많아 구경할 곳이 수두룩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있고 이상한 것이,

주강 (珠江) 위에서 작은 배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수상생활자 (水上生活者) 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광둥 아 니 중국 에서 가 장 때 이 있는 광 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 수상생활 자들은 달리 담민 (蛋民)이라고

불리우며, 그 수는 실로 100만 이 나 됩니다. 그들은 작은 뗏목에서 세상에 떠어나 그 배에서 살림을 하고, 또 그 배에서 한 평생을 마치는, 세계에서도 가장 이상스러운 민족입니다. 물의 도시라 하면, 누구나 이탈리아의 베니스를 생각할 것이지만, 베니스어선 물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다와 강이 도시를 꼭 둘러싸고 있는 모 꼴이 한 모 꼴이 고로, 꼭 꼭 꼭

을 하고 서 도 연 락을 하지 않고 면 안 되는 것이 니 까, 이 중국 의 담민이라고는 전혀 몰리는 것 이 니 다.

이들 담민은 육지 사람들과는 서 로 모 꼴도 결 론 모 안 하며, 육지 사람들은 이 담민들을 업 신 어 기 고 모 꼴 하는 것을 싫어 하 니 다. 그리고 이들 담민은 육지 사람들과 일 할 모 양, 물 가 점 도 꼭 달 라 키 도 작 고, 일 할 모 양 도 점 도 다릅니다. 성질은 적

검소하고 부지런하나, 노 집이 세고 작은 일에 업 겨 싸 움을 하 니 다. 이들은 직업으로 어 업 도 하고 뱃 사 공 노 릇 도 하는 데, 그들은 그 들 때 로 출 몰 린 거 리 를 가 지 고 있으며, 어 머 가 지 상 업을 경 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타 른 곳으로 이 사 를 하고 싶으면 집 제 를 아 갈 수 있으며, 매 만 히 편 리 한 생 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으 로 이 상 한 사 람 들이 아 니 니 까!

# 동요 맛보기

## (3) 박 영 종

이 딸은 화롯가에 모여 앉아,  
"귀여운 등요"를 뽀아 봅시다.

조롱조롱 조오롱  
머가 머가 조오롱

자장자장 애기 눈에  
잠방울이 조오롱

가물가물 애기 눈에  
꿈방울이 조오롱

어때, 재미나지? 박스컬하시느  
엄마 옆에 그 조롱 조롱한 눈을  
등그렇게 뜨고, 아기가 용알이  
(아기의 어둔한 사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귀여워서 어머니  
가 박스컬 감을 견우실 거물드  
없이, 아기를 알아 짓을 물리고  
저장가를 부르며 등을 두어번 드  
닥닥.....

아기는 이내 눈이 가물가물,  
두 눈에 꿀방울이 다닥다닥 열  
리지.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대롱대롱 대애롱  
머가머가 대애롱

뽀얼까요? 대애롱은 조오롱보  
다 좀더 부피가 있고 굵지. 조롱  
이 여러 개 조롱 조오롱 조롱한  
때 열어서 할 거의 대애롱에 별

니다. 그 무엇이 대애롱 뽀얼을  
까?

구름 끝의 물방울일까?  
처마가에 증정일까?  
잠나무 밑 꼭지에 마다 날을 감  
환전까?  
아니지.

대롱대롱 대애롱  
머가머가 대애롱

잠박잠박 애기 눈에  
잠방울이 대애롱

시근시근 애기 눈에  
꿈방울이 대애롱

(잠방울 꿈방울\*을 복전)

아직 눈에, 잠방울이 조롱조롱  
달리고, 그 잠방울에 잠이 차차  
로 모여 대롱대롱 떨어질듯 절듯  
달렸다가, 잠방울이 모조리 눈으  
로 콕콕 떨어지면, 아기는 그만  
시근시근 꿈나라로 깊이 잠이  
들지.

(꽃이 아주 오물듯이)

잠이란 어떻게 오는걸까? 아  
주 재미나는 얘기를 한가닥 따 울  
시다. 한때루센 할아버지의 얘길  
니다.

옛날 쉬스 곳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만골

지난 일과 앞날의 얘기를 많이  
이시는 분은 이 세상에는 들르일  
때요. 언제나 아주 그스그스 지  
미나는 얘기를 소복히 지니고 다  
나시지요.

밤이 되어서, 아기가 발상  
미리들게 불려 가기도 앉았는지,  
그 할아버지는 어슬렁 어슬렁 오  
지요. 가만히 출렁대를 일으켜 승  
니다. 아기가 이층에 있거나 하  
키는, 그러나 출렁대를 걸었기 때  
문에 말락 소리로 아니 납니다.  
가만히 잠든문을 열고 화서는, 아  
기 눈에 리함 것 (우유)을 한 방  
울 넣음 들러 넣지요. 아무리 조  
금 넣어도 그만 아기는 눈을 못  
듭니다. 그 첫번 눈에 잠방울이  
조롱조롱 대롱 떨어지 때문이지.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아기를 때  
지려는 것은 아니지. 아기를 아  
주 귀히 여깁니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날 조  
용하게 떠두자는게지요.

아기가 잠이 들려는, 그 할  
아버지는 아기 잠자리 편 옆에 전  
혀 앉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아들답고 좋은 웃을  
일으키었지. 비단으로 덮는때,  
그 빛같은 보기에 마다 빨강기르  
하고 파랑기르 합니다. 뿐 아니  
라 양편 저드랑 필하는 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산 가운데 그림이 그려 있  
는 양산은, 착한 아기 위해 떠  
들니다. 그러면 아기는 밤새 재미  
나고, 좋은 꿈을 수두룩 꾸지만,  
또 하나 제까만 양산은 실수꽃  
은 아기 머리 밑에 세워 줍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잠들 들을 자  
고, 억울날 아침에 일어나면, 한

가지 한 가지 품도 못 품었지요.

어떤 새끼입니다. 어디 낳은 거  
날 밤에 어느 방에 낳아서 잤습  
니까?

어학자를 다시 부르므로 불필시  
다.

그런 아기의 자는 눈으로 세브지  
만, 파란 구슬 같은 광자가 깜짝  
이른 눈은 더 귀엽습니다. 그러  
나 아기의 눈이 어떤 때 그중에  
떨니까?

얼마 몇 먹을까?

또는 혼자서 자만의 물을 쳐다  
볼 때?

은 복진 선생님은 아들이 가질  
어머니와, 바깥에 나가셨다 돌아  
오시는 아버지 마중 나갈 때, 아  
기의 눈이 그 중 어떤 때입니까.

소롱소롱  
눈소롱

수레바퀴  
꽃소롱

꽃소롱  
꽃소롱

얼마 마중 갈 때  
꽃소롱 꽃소롱.

꽃소롱 말하는 빛은 소롱 소롱  
말은 아기의 눈과, 더욱 환하고  
난다는 것입니다. 손 중얼 질문  
비어두고 아들이 가셨던 어머니  
가, 저 멀리 문득을 돌아 올 때는,  
어디 본도 얼굴이 활활 말아오르  
도록 기뻐던 기억이 떠오르요? 아  
시도 역시 눈을 활짝이며 등판은

대어 찍으며 열매를 부를까.

얼마로 마중가기로 한겨울엔, 열  
의서부터 두 손을 내밀고 오셨니  
다. 그때 학기는 눈이

소롱소롱  
꽃소롱  
눈 떨립니다!

소롱소롱  
눈소롱

우리애기  
꽃소롱

꽃소롱  
꽃소롱

대어 마중 갈 때  
꽃소롱 켜지요.

(꽃소롱 꽃소롱을 복진)

“꽃소롱 꽃소롱” 단 한대 한대  
살아온 새끼의 첫 영혼을 갈라  
올랐다.

새앙귀 새앙귀  
새 앙귀로 나왔나.]  
과꽃눈에 묻은 팔  
꿈을 하고 있었지.]

새앙귀 새앙귀  
새 거릴게 부엌자.]  
발 한 문에 락 깔에  
재를 흠뻑 뒤셨지.]

새앙귀 새앙귀  
여과 마미 걸었다.]  
부엌으로 들어가

뜨물떡과 감았을

새앙귀 새앙귀  
발 세도록 뒤렸네.]  
자는 아기 얼굴도  
살살 기어 다녔지.]

새앙귀 새앙귀  
왜 또 빌씩 나왔나.]  
세수하나 안 하나  
구경하러 나왔지.]

(새앙귀을 복진)

아기가 화롯불에 밤을 구어 먹  
습니다. 그소한 군밤 냄새에 새  
앙귀가 못견디는게지. 밤자의 구  
멍을 품고 그 쓰빳한 얼굴을 꼭  
내밀니다. 두 눈이 도록합니다.  
아기가 새 안좌로 나왔나? 물어  
며 새앙귀만 눈 재담이 재미남니  
다.]

화롯불에 묻은 밤  
꽃소롱

바깥에 한 것일까요. 물이위로  
—일어나 열거있고 그와야 재담  
하는 말았어까!

또편에 여들날 아기가 얼굴 쯤  
는 부엌질 담 구멍에서, 또 그 쓰  
빳한 얼굴을 꼭 내밀니다. 두 눈  
이 도록합니다. 학자가 새 쓰빳  
히 나왔나? 물어니 새 재담하  
려유더 재미있었다.

세수하나 안 하나

모이 왔까지, 얼마나 우스꽝스  
로우며, 세수하나 안하나... 재미  
있는 말았어까!

—계 속—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 유대와 아랍은 어떠한 나라? (3)

서울 사범 대학 강사 정 갑



시나이산에 있는 옛날 아랍어 집

아랍은 어떠한 나라인가? 아랍이라 함은 회회교(回回敎)를 신봉하는 아라비아계의 민족을 통틀어 말하는 것인데, 서아시아의 페르시아, 시리아, 이라크, 아라비아의 각국, 아프리카의 애굽(에집트) 까지도 포함하여, 아랍 연맹을 조직하여 그 종교적 전통과 사막원지(沙漠泉地) 문화를 융화하려고 한다. 아라비아 민족은, 그 이롭지 못한 환경을 물리치고, 과거의 아라비아 문화를 창조하여 세계에 건립하여, 오늘날의 구미(歐美) 과학문화의 근원을 만들어 주었고, 그 사막 종교의 창설자 마호멧트의 회회교만 하더라도,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인도, 인도차이나, 인도제국까지 미치어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발걸음이 사막에서, 모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피어진 자연적 발전이라고

믿으며, 오늘날의 지방은 고난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생명선이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회회교는 무단(武斷)적이며, 우주(宇宙) 최초의 신(神)가타이를 믿는 정치성을 가진 종교이므로, 유대교나 예수교와는 서로 용납(容納)...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을 들어 주는 것) 못하는 태도적인 것이다. 회회교의 무단적이라거나 침략적이라거나, 그러한 것은 별문제로 하고, 유대인이 수 천 년 이래 실패로 발전하여, 때때로 손이 개척하여 살아 오던 유대지방도, 오늘날의 주인은 아랍이라는 것이다. 분쟁(紛爭)의 근본적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민족 분쟁 해결어, 얼마나 곤란한 문제인가를 알 수 있다.

## (5)

그러면 이 세계문제의 한 두 민족 유대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가? 벌써 몇몇을 두고 국제연합에서 논의(論議)되고 있는데, 양쪽이 다 할아힘만한 좋은 안이 나오지 못하여,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유대문제위원회를 두고, 아랍측의 주장인 독립안과, 유대측이 주장하는 분할안(分割案)을 논의하였다. 작년 12월에 결국 분할안을 33 대 13으로 결의하였다. 그 내용의 요지는,

1. 영국의 위임지지는 1948년 8월 1일로 끝마칠 것.
2. 1948년 10월 1일에 두 민족은 독립할 것.

## 22마 상식

떡갈씨를 지어지지 않게 하려면 떡갈씨는 보통 물에 넣으면

지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지어지지 않게 하려면, 달걀 흰자에다 물을 섞어 그물로 먹은 갈아서 글씨를 쓰면, 아무리 빨아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밖에 달걀 흰자는 구리세련과 개어서 물에 데웠을 때 바

르면 빨리 낫고, 또 가죽으로 된 책 접질이 넘어워졌을 때, 달걀 흰자를 거름을 내어 물을 조금 섞어, 그것을 용 헝겊에 짚어 가지고 책 접질을 문지르면, 때도 빠지고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2, 예루살렘의 무슨 일은 국제사회 (國際社會)에 알려 있는 것.

4, 18세 이상의 국민 선거권 부와 전부 를 세우 는 것.

중인데, 이것이 발표되자 아랍 국들은 각지 에서 한편 의 시위 운동 을 일으 기고, 군대 를 봉원 하는 중, 국제 군을 편성 하야 하는 중, 두 세력 은 부의 충돌 가지 가지 되었다. 아랍 의 백민 을 대로 하는 군대 는, 제 리타 사마 부터 에 저나 리 안으나, 그 수가 아랍 인명 의 대중 을 가진 것인 만큼 심수 만에 달라 고, 유대 군은 세계 각지 에서 최용 병 (義勇兵) 으로 모집 된 군대 원의 경험 을 가진 국제 군을 대경 한 군대 이나, 그 수는 11만 이내 라 하는 것이다. 원래 는 국제 연합 의 원으로 본격 적 의 역을 하지 않고 있으나, 과거 의 경험 을 실시 하지 못한 데, 지난 7월 6일에 비국 은, 중전 의 대포 를 감지 기 변경 하여, 유대 · 아랍 연방 (聯邦) 조직 안을 다음 과 같이 제안 하였다.

1, 프란 스프 로만 을 합선 하는 과제



남의 아랍 사디시의 어린이 이회교 (伊回校)에

## 과학 질문

(문) 선생님! 안녕하신가요? 날이 점점 추워지며 그래서 우리들의 방학이 가까워집니다. 그 전서부터 궁금하던 질문 하나 묻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은 왜 자고 깨었을 때는 물건이 잘 보이지 않고 또 눈을 비비니까? (경기도 수색교 5년 권 오순)

(답)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눈물이 나오는 누선 (淚腺)도 쉬는고로 안구 (眼球)가 마릅니다. 이렇게 안구가 마르게 되면 망선이 풀어가는 도수가, 축축하게 되었을 때보다 훨씬 적고 물리는 까닭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고 깨인 사람이 눈을 비비는 것은, 눈 가를 비비면 누선이 자극되

어 눈물이 나와, 알구를 축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문) 선생님! 참으로 이 세상에는 과학뿐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이상하고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과학 질문 페이지를 가지고도, 여태까지 문안 못올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쁘신데 미안하지만 한 가지, 나무를 태우면 왜 검은 것이 생깁니까? (서울 배동교 황 경식)

(답) 나무는 주로 탄소 (炭素)와 수소 (水素)라 하는 성분 (成分)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의 탄소는 공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라기 어려운 고로, 라기 어려운 때에는 공기 속에 작은 탄소의 알갱이 (粒)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것도 라지 않은 탄소의 알갱이지요. (전집부 과학계)

스라인을, 유대·아랍연방의 제안으로 할 것.

2, 예루살렘시는 아랍족의 영토로 하고, 유대인에게는 자치 (自治)를 할 것.

3, 성지 (聖地)를 보존할 것.

이 안의 데카어로 아랍족은, 전 아랍연방의 원을 가지고 받게 하고 있다. 어찌 분! 이러한 조건의 사실로 대강 알고 보면, 어떻게 해결되어야 두 민족의 행복이 되고, 세계의 평화도 유지될까요?

(끝)



# 봄의 노래 ①

정 인 택  
그 림 · 김 의 환

## (1)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또 오  
세요.”

형태는 쾌활하게 손을 저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구탁부를 나  
섰다. 김 명수는 그 뒤를 문밖  
까지 따라 나가며,

“그때, 어서 가서 부친편히 팔  
구…… 또 들벼라.”

친 동생이나 대하듯 애정에  
넘치는 웃는 낯으로 전송했다.

형태는 정중정중 뉘다싶이 가  
벼운 걸음 걸이로 지름길을 빠  
져 나갔다. 그 뒷모양을 매절한  
듯이 한참 동안이나 서서 바라  
보고 있던 김 명수는,

“인젠 내버려 뉘두… 자람되겠  
지…”

또 한번 빙그레 웃고 나서 이

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발을  
돌이켰다.

김 명수가 구탁부로 돌아와  
서, 자기 방에 들어가 앉자마자,  
옷통을 벗은 제자 한 사람이 뛰  
어 들어오더니,

“선생님, 쉰 학생아이가 선  
생님을 찾아 왔는데요.”

썩근거리며 말했다.

“학생 아이?”

“네, 한 열 서너살 쯤 보이는  
사내 아이예요.”

“누굴까?”

“선생님한테 뭐 여쭙 볼게 있

네나봐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리 물어  
오래지 그래.”

“네.”

제자는 반쯤 문을 열고 손짓  
을 해서 찾아 온 아이를 불렀  
다.

나가는 제자와 엇바뀌어 방에  
들어온 아이는 동호였다.

동호는 모자를 벗고 공손히  
인사를 한 후에,

“김 선생님이세요?”

하고 불었다.

“그때, 내가 김 명수데… 어디  
서 왔지?”

동호는 무엇이냐 대답할 줄을  
몰라, 잠깐 머뭇거리다가,

“저어… 김 형태란 아이 아시  
죠?”

물쭏 또 한번 불었다.

김 명수는 그 말을 듣자, 얼



## ☆ 62호까지의 대강 이야기 ☆

은 벽옆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지, 한참 동안 돌고돌이 동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이 없었다.

이윽고 김 명수는

“알지.”

간단하게 대답하고 나서, 동호를 가까이 오라하여, 자기 옆에 앉힐 후,

“네 이름이 동호지?”

라고 되물었다. 동호는 껍딱 놀랐다.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김 명수는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은 하지 않고 연해 고개를 끄덕이며, 또 동호의 얼굴을 훑어져라고 바라보는 것이다.

한편도 만난 일이 없는 김 명수가 어떻게 자기를 알까?……

동호는 잠깐 놀랐으나, 그 놀람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 뚝뚝 가슴에 치밀었다.

그때 찾았다!

김 무엇이란 전무전수…… 명동 근처…… 형태에게 꼭 한번 들은 그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언젠가 한강으로 일출 지치며 갔다 결심 한듯이, 동호는 역겨부터 무척은 명동 거리를 쓰다녔다.

낮 설은 고장인데다, 풀을 사담도 만만하지 않아, 동호는 다리가 피곤하도록 풀목마다 기웃거리며,

…… 형태 있는 데를 알려면, 그러로 찾아 가는 수 밖에 없어, 그 결심이 끝끝내 동호로 하여금 이 구타부를 찾아 내게 한 것이다.

그때 찾았다……

동호는 27번 전까지 같이 학교에 다니던 동호 형태를 십년간에 갈아서 우연히 만났다.

동호는 “형태” 이런 별명대로 어렸던 것도 하고 동호도 기보였으나, 형태는 길러 보지않은 숙성하여, 이미 “칠수”란 별명을 어울리지 않았다. 제구간 그렇게 있을 뿐 아니라, 형태는 어른 같이 세 상 풍경을 잘 알았다.

형태는 동호를 극장에도 비키고 기고 청요리도 사주고 한다. 학교 외에 그런 제재가 있는줄 처음 알은 동호는, 형태의 유혹에 빠져, 아주 나쁜 아이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러저 하주는 형태의 정을 뜻이기에, 집에서 돈을 훔쳐 내어다 그런 일이 있을 후, 동호는 양심의 가책을 못이기에, 여러 가지로 생각한 나머지, 형태와 더 사이가 멀어지리라 결심한다. 마치 어린 아이가 짐 착성인 것이다.

그러나 형태는 반쪽 동계 집으로, 학교로 동호를 귀동 바라다내며, 자주 돈을 달라고 졸라 번다. 그러나 동호에게 돈이 있을 리 없었어. 그것 때문에 그에 그를들 대기대기 미안으로 싸우며, 그때 형태는 동호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자식아, 넌 애미 애미부 없는 자식아. 열아라 기본 개구멍이야.”

그 말을 듣자 동호는 하늘이 무너진 듯 놀란다.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동호는 정신 없이 집을 쓰자난다. 어떻게든 해서 형태를 다시 만나,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날씨가 몹시 추웠어, 동호는 그에 어느 극장 안에서 관도 (관동) 하고 한다. 한편 형태는 동호와 싸우고 헤어진 후 전무전수 김 명수를 찾아 가서, 집에 있

지 몇몇 사정이 있으시. 온 으백 (관동) 들러 말하고 청한다. 그 돈을 일원으로 담배 장사라도 해서 돈지 살아 가려는 것이다.

김 명수는 돈 천 원을 배어 주며,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걱정을 해 준다. 형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전차를 탔다.

선차 안에서 형태는 어쩔가게 소매치기로 갈아, 경찰서에 잡혀 가서 결국 유치장에까지 끌리게 된다.

동호는 극장에서 돌아와, 며칠 평안을 잤다. 당연히 꾸지람을 듣거나, 매를 맞거나 할줄 알았는지, 일인양구 말이 없으신게 더욱 동호를 불안하게 하였다.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얼마전 기온 저하이어서 지시도의 가시는게라고, 그런 의심이 점점 깊어 진다. 그러저, 아버지께 일기에서, 아버지는 동호가 든 공채취일 일까지 다 알고 지시하는 사실을 처음 알고, 동호는 깜짝 놀란다.

한편 형태는 유치장 연구소에 포그리고 앉아 지를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지난간 생활을 꼼꼼히 생각한다. 동호의 일과 적당해서 살던 때의 행복스런던 지기, 아버지가 집을 자주 비이기 시피한 후부터의 불행, 마야리도 이사한 뒤 불모에게서 들은 가짜인 말……자기가 개구멍이라는, 지를 부모가 인부모기 아녀리는……이로부터 차차 나쁜 동호의 고립을 받아 부엌소년이 된 자기.

이튿날,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새운 형태는, 김 명수의 보광으로 무사의 경이저를 나왔다. 이제부터는 끝까지 살아나기야겠다. 그리고 동호에게도 시화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새 출발! 김 명수가 된 형태……

스스름도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동호는 김 명수 앞으로 바락 다가 앉으며,

“형태한테 제 얘기 들으셨군요……네, 지가 동호예요.”

오래 전부터 알던 사람 대하듯, 이렇게 말했다. 저절로 입

가에 웃음이 떠오르는 것을 글할 길 없다.

“그때, 형태한테 네 얘긴 다 들었다.”

“선생님, 형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길이 어긋나



니. 금방 여길 다녀 나갔는  
 때.....”  
 “네? 다녀 갔어요?”  
 동호는 모자를 집어 들고, 골  
 꺾마도 찾아 갈듯한 기세로,  
 “어머루 갔어요?”  
 바글하게 물었다. 그러나, 김  
 명수는 여전히 빙글빙글 웃으며  
 일루터 느릿느릿한 말로,  
 “글세. 어머루 갔는지는 모  
 르겠는데.....,”  
 놀리는듯 대답하였다.  
 “그럼, 개네 짐줄 가르쳐 주세  
 요.”  
 “이따금 잘나긴 하지만.....차  
 는 못알아듣는다.”  
 그 대답을 듣자 동호는 아주  
 낙담했다는 듯이 다시 절색 자  
 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것을 본 김 명수는 빌떡 의  
 자세서 일어나, 동호의 어깨를  
 탁 치며,  
 “우리는 모르지만.....걱정말

어, 내 형래 만나게 해주지.”  
 말하고 나서, 재미있다는 듯  
 이 절절절 찬바람 웃어대었다.

( 2 )

동호는 무거운 짐을 벗어 놓  
 은 듯 했다.  
 긴 긴 장마가 개이고 여러 날  
 여러 달만에 푸른 하늘을 우러  
 러 보았을 때 모양으로, 마음 속  
 이 화안하지 않아 오는 것이다.  
 “내일 모레 오정 때 이리로  
 오너라. 그럼 형래 만나게 해  
 줄테니.....”  
 김 명수가 그렇게 말했을 때  
 동호는 그만 기쁨에 넘쳐,  
 “꼭예요, 약속하세요.”  
 버릇없이 그런 소리까지 하었  
 던 것이다.  
 .....매일 모레면.....  
 형래를 만날 수 있다. 형래만  
 만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가 있을 것이다. 동호는 그것

을 생각하기 저절로 걸음이 빨  
 라지고,  
 어둡고 피로워라  
 밤이 깊더니.....  
 그런 노력이 빙글거리의 입술  
 사이로 저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것이다.  
 동호가 마약 천변가 문득 어  
 구를 돌아서며 말 때였다.  
 “학생! 학생!”  
 귀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때도 자기를 부르는 소리  
 같아, 동호는 힐끔 귀를 돌아보  
 았다. 웬 아주머니가 반색을 하  
 며 따라오는 것이다.  
 “학생, 잘 있었우?”  
 동호는 누군지 얼른 알아보  
 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그 아주  
 머니가 가까이 다가와서,  
 “신수가 화안해졌군 그래. 이  
 주 끝마 보겠네.”  
 손이라도 잡을 듯이 반갑게  
 인사할 때, 동호는 퍼뜩 기억에

國立圖書館藏書

백으로눈 얼굴이 있어.

“아! 밥장수 아주머니……”

하고 소리쳤다.

월파와 싸운 날 아침, 백우개 장 위에서 밥 사먹을 때의, 그때의 그 물살을 하던 밥장수 아주머니였던 것이다.

몽호도 반가웠다.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모자를 벗고 인사하는 몽호의 손을 잡아 끌며, 밥장수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 좀 들러가요, 바로 저기 되는 저 집아.”

찌그러져 가는 초가집 한 모퉁이, 율리장 달린 빈대떡 가게를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네에? 거기다 가게 내셨어요?”

“그렇다우. 한 열흘 천백턴 가지라구 내긴 했는데…… 학생부 아다실이 걸 가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짝 밀천이 있겠우……그때두 도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떡……자아, 바깥 아무누 없으니 여서 들여봐요.”

가게 안은 좁고 누추했으나 혼훈했다. 몽호와 밥장수 아주머니는 화로를 켜고 마주 앉았다.

“다져보면 몇날 안되는데, 피오래 못본 것 같군 그래.”

몽호는 무엇이랴 대답할 줄 몰라서, 싱겁게 싱글 빙글 웃어 보였다.

“한번밖에 알만났지만, 웬 일인지 학생 얼굴이 있어퍼리지지를 앓는구려. 지금두 무심코 밥을 쳐다보려니와 학생

얼 지나마졌지, 백우개 밥장수 지, 그래서 찾아 보겠지.”

그러더니, 화로 위에씩 손을 짚고 떠비고 난 밥장수 아주머니는,

“내가 이러구 가만해 앉았네, 정신좀 봐!”

수절을 피며 일어 나더니, 빈대떡하고 제육 한접시를 몽호 앞에다 갖다 놓으며,

“추울테니 이천부 요거나 짜구, 천천히 놀다 가우.”

“아메요, 몽호는 백우개 밥장수 어요.”

“네 안고보면 백우개 안문데 잘라구, 백우개 주안말구 어복 좀 들여 보우. 밤낮 혼자 가게 보려니와 점심때 죽겠다우. 손님이나 불쌍으면 잊어버려우, 여당 잘 보려가, 한가한 때가 더 팔을걸……”

밥장수 아주머니를 여걸히 걸과 같이 수다스며왔었다. 그때 같이 얼굴에 슬픈 빛이 퍼들지

등 요

## 눈오는 밤 잠오는 밤

박 영 중

<p>아기 눈에 소복소복 잠이 오듯이</p> <p>하키 귀에 소복소복 잠이 오듯이</p> <p>소복 소복 눈이 온다.</p>	<p>뿔대밭에 사락사락 눈이 오듯이</p> <p>지붕 위에 사락사락 눈이 오듯이</p> <p>사락 사락 잠이 온다.</p>
-----------------------------------------------------------------------------------	----------------------------------------------------------------------------------



그림 · 정 현 중

많은 것만은 알았다.

동호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밤장수 아주머니의 얼굴은, 눈물이 글썽 글썽한 처분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지금도 어딘지 모르게 눈 가장자리에 어둔 그림자가 머물고 있기는 하나, 그전 같이 우울한 표정은 아니었다. 동호가 처음 알론 못알아 본 것도 이 때문이었다.

“참, 학생 고향이 서울이었지.”

“.....”

“어느 시골이유?”

동호는 짓가락만 배만저거리며 고개를 숙으웠다. 그 때 무심코 한 거짓말을 그대로 또 되풀이 할 수도 없었거니와, 그렇다고

“그건 거짓말예요.”

얼른 그렇게 고쳐 말하기도 좀 거북했던 것이다.

“등 말이 없어, 참 앞전두 해라, 학생 스스로워 할 것 없이, 내질 같이 맘 터 놓구 놀다가우. 고향이 서울이면 서울엔 누가 계시우?”

두번째 물음에도 대답 안할 수가 없어, 동호는 잠간 머뭇거리다가 결연하게 웃고 나서,

“아네요, 저의집은 서울예요.”

장난군 모양으로 손으로 입을 물어막고 킬킬대었다. 전에 거짓말 한걸 농담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3)

“아아니 그럼 학생이.....”

밤장수 아주머니는 불안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도록 놀라며

이렇게 외적으로 따서,

“바루...선창 안에서 어플장사 하시던...그 이씨 데 도련님 이우?”

눈을 동그렇게 뜨고, 풀어져라고 동호의 얼굴을 붙여다 보는 것이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끝에 동호는 아무 생각없이, 자기 사정 이야기를 모두 밤장수 아주머니한테 털어 놓았던 것이다.

마음 속에 기쁨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른다. 혹은 친절한 밤장수 아주머니가 이것 저것 붙는 바람에, 마음 속의 궁금종을 한시타도 바빠 풀어보고 싶어 그랬는지도 모른다. 동호는 집안 사정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형제와 싸우던 이야기, 그리고 천신만고해서 형제있는 곳을 알아낼 때까지의 자초지종을, 하나도 빠지 않고 다 이야기했던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자, 처음부터 줄기색이 다르던 밤장수 아주머니는,

“어쩌면...참 듣고 보니까 아버지 모습 그대로구려.”

이렇게 말하고, 동호의 손을 덩석 잡았던 것이다.

이번엔 동호가 놀랄 차례였다.

“어떻게...저의 집을 아세요? 아주머니는...”

그러나 밤장수 아주머니는 그 앞에는 대답을 안하고,

“그럼...그 형제라는 아이가...”

바루 도련님 데 뒷집에 살았었우?”

그렇게 묻는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빙 돌았다.

“네...왜냐하면 어떤 편 말...”

“제 성이 그럼 신지오?”

“네.....”

거기까지 듣고 난 밤장수 아주머니는, 불안한 채 눈이 않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 울드리며, 어린아이 모양으로 엉엉 목을 놓고 울기 시작했던 것이다.

동호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겨를 놀라며 머뭇하니 앉아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윽고 울음을 그칠 아주머니는,

“형제...형제... 도련님 얘기를 들으니 내가 바루 네 자식이 구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조차 모르던, 생리떨란 내 아들이구려, 온 이런, 밤장수, 고맙구...”

넋두리 하듯 말하는 것이다.

“네? 아주머니가...형제 어머

소년 과학 문답 집



이 세상에서 가장 궁금한 것 150가지를 추려, 선뜻선뜻 대답해 낸, 유익하고도 재미 있는 과학 문답집! 자습, 학습, 입학 준비에 없어서는 아니될 책입니다.

편찬 ★ 과학 동무회  
발행 ★ 글벗 집  
서울시 元禮路 4 街 123

11월 120원

문답의 文章閣 서울신문로?

바람이...

“바람, 아직 도련님, 불이 보러 오? 이 불을 번의 맹신을...”  
아주머니는 또 세삼스럽게 솟아 나오는 눈물을 턱을 쓸 조차 모르고 이렇게 서투름 하고 나서,

“...아직 도련님 날기 전 얘기라 우. 내가 하루 도련님 때 이곳에 살면서, 참 허물없이 때에

드나붙었다우. 이 때나 저 때나 나는 가난해서, 때 심세부 이만 저만 전지 아니라우. 참 지금 생각되니까 그 때 아직...저어, 도련님 어머님께서 때가 불로셨었군 그때...그 때 나우 아이를 낳는데, 그걸 낳자마자 남편이 죽구...혼자서 먹구 살 보리는 없구 해서...팔자를 고치자니...젓먹이가 말렸구...그때서...이 불을 번이...갖난 애틁...제 자식을...마침 신씨 때에 자손이 없대서...후유.”

밤장수 아주머니는 잠간 말을 끊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고 나서,

“...도련님 어머님께서 이 내력을 잘 아시지만...머언 시골부 개가를 했더니...자식 버린 번에게...무슨 좋은 일이 있었우...남편 잘못 만나, 거지 모양으로 이리 저리 굴러



다니다가...”

또 말이 끊지었다. 가슴이 답답해서 더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없는듯, 밤장수 아주머니는 또 한번 긴 한숨을 모하더니,

“...에미 애비 없이 자란 녀석이...애 불쌍해지지 않겠우...그 녀석이 어디서 제 얘기를 듣고 나서...그걸 수제 그림님께게 뒤집어 써우구...그때, 도련님! 그 형태만 녀석이...도련님버덤 키가 크우?”

“그럼요, 어른 같은데요.”

“형태...불쌍한 놀이래우...죽지 않구 살았다니...이런 고마울데가...”

울가망이 된 얼굴에 환가닥 밝은 빛이 비치더니,

“내 어쩐지 한번 밖에 안만난 도련님에게, 자꾸 마음이 찢리길래,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입가에 가냘픈 웃음이 떠올

랐다.그 웃는 입 가로 두 줄기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 떨어졌다.

기쁜 것도 같고, 슬픈 것도 같아, 동호는 당초에 간피를 찾을 수가 없었다. 무엇인지 몰라도 마음 속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 하나, 찬전, 엄연맞인 듯, 경선이 얼떨떨 하기도 하다. 영혼하자면, 신신이나 되어 구름을 타고 훨훨 창공을 날으는 듯 한 그런 느낌이나 비할 수 있을 것이었다.

“아찌부 인젠 혐으셨을걸..... 자아, 어서 갑시다.....”

밤장수 아주머니 서투름은 바람에, 동호는 정신 없이 앞장을 서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동호는,

.....음지, 지금까지의 잘못을.....이 아주머니더러 아버지한테 어찌 말래자!



백은 무엇보다도 밀정 구경을  
살았다.

그러나 노여움처럼은, 동호의  
표정에는 옛 동무를 만난 커다  
란 계몽만이 넘쳐 흐르고 있었  
다.

동호는 필안간 책 한 권을 쥐  
로 물러 서더니,

“이자식아! 잘못했어! 뭘  
해야?”

그러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  
어 눈 앞으로 치켜올렸다. 권투하  
는 시늉이었다.

형태도 입을 꼭 다물었다. 그  
리고 나서, 목에 걸었던 담배 상  
자를 거만리 옆에 내려 놓더니,  
“진짜진 자식. 종살 알맹이  
같은게, 너 같은걸 한테다, 한  
테! 자, 덤벼라!”

그러면서 동호와 마주 서서 두  
주먹을 앞으로 내밀었다.

눈이 마주쳤다.

두 소년의 눈에 눈물이 어리  
었다. 그러나, 여러 사정 보는데  
서 울기는 참려 않았다. 두 소년은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  
지로 참고, 그 내심 마음놓고 한  
편 웃어보며 하였다.

그 때, 사무실 문이 덜컥 열  
리며, 여러 사람들이, 활달히 이쪽  
으로 향하였다.

그것 하나만은 생각하고 왔던  
것이다. 동호의 마음 속에 남아  
있던 마지막 그림자도 이것으로  
제멋대로 찢어 없앨 수가 있었  
다.

(4)

“아저씨, 담배 하나 빌려 주  
세요.”

형태는 일부러 익살을 부리  
느라고,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  
며 권투 구락부 안으로 들어왔  
다.

“이 자식아. 담배가 다 뭐야.”

그 순간, 웬 소년 하나가 독  
립이 나오더니, 앞을 탁 가로 막  
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형태는 질끔해서 발을 멈추고

고개를 쳐들었다.

동호였다.

형태는 무 불이 화끈 달아 올  
타오는 것을 느꼈다. 반가웠다.  
그러나 피스려웠다. 부끄러웠  
다.

동호의 얼굴 위에 무슨 노여  
운 빛이라도 떠있지 않나... 형

종로서원 동화책 제1집

## 설희와 장미

조종연·심은정·문용구

계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림  
동화 가운데서, 제일 재미있는

“설희와 장미”의 비평을 글  
라서 재미있는 동화책입니다. 그  
리고 결장과 속 그림은 여러 분  
이 잘 아시는 김희환 선생  
께서 그려 주셨습니다.

책 값 150원 (송료 10원)

서울종로 3街16 종로서원 발행

“저런 비속을 봤나.”

동호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만나자 마자 축하여미니?”

동호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다음에 김명수가 두 소년 앞으로 다가 오며,

“물렸다. 물렸어, 바운목 어귀 물 이렇게 튀로 더 내어!”

선생님더듬게 호명했다.

그러나, 밤장수 아주머니, 아니 할매 어머니만은 말이 없었다. 말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볼 뒤에 숨어 감히 일도 나오지도 못하고, 어찌어찌로 할매의 모습을, 상성한 아들의 모습을 훑어 보며, 소리없이 눈물짓고 있었다.

아까까지도 그렇게 명망하던 할매 어머니였으나, 지금 그는 무서운 사람 알지 나간듯, 가슴을 찌지 못하고, 그리고 몸을 오글오글 떨고 있는 것이었다.

그저께 동호의 집에 오던 날부터 얼마나 오해를 손잡아 기다리던 할매 어머니였던가. 물론 동호도 그랬으나, 할매 어머니의 감정은 그보다 몇 배 더 컸다. 할매 어머니는 마치 새색시 모양으로 수줍어 하면서도, 행복스러워 보였으나, 막상 그 순간을 목전에 대하고 보니…… 나오는 것은 오직 눈물 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착한 사람들이다.

하늘도 이 날을 축복할인지, 비단결 같이 고운 햇벌이 은누리에 가득 차 있었다.

(끝)

# 그림 속담



청보에 개동

아름다운 청빛·비단 보자기에, 얼마나 귀하고 드문 물건이 붙었나 하고, 쳐보면 개동이 싸있다는 격이니, 결단 번드레 아름답고 속은 말랄 수 없이 더럽고 악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쓴다.

참새가 밤야간을 그저 지나지 못한다

말이 수두룩 흘러져 있는 밤야간을 참새가 어찌 모르고 그중 지내가랴. 이와 같이 자게와 즐기는 것이 있는 곳은, 모른척 하고 그저 지날 수 없다는 뜻.



엮르고 펼치기

결으르는 가장 자랑하고 위해 주는척 친절히 하면서, 뒤로 가진 가진 속설과 구박과 냉패를 하는 것을 비껴어 이같이 말한다.



서투른 숙수가 파나무 안 반만 나무란다

자기 솜씨가 부족한 줄은 모르고, 안반이 나쁘니 무엇이 나쁘니 부덜민다는 말로, 일이 서투르거나 노력이 부족한 것을 들보지 않고, 할배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비웃는 말이다.





# 삼국시대 과학 (6)

(상)

## 홍 이 섭



삼국시대 과학에 대해 세 얘기를 하겠는데, 하나는 삼국시대의 얘기를 할 때는 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신라(新羅)를 나누어서 본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세 나라의 과학을 합해서 종합(綜合)해 보자는 것이다. 먼저 삼국시대 과학이 어느 나라의 영향(影響)을 받았던 것일까? 를 생각해 보자.

속 조선 문화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더 말할 거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상고(上古...아주 옛날)의 문화가 모두 중국 문화의 영향만을 받은 것은 아니다. 원래 먼저부터 조선 사람이 가져다 있던 문화에 중국 사람의 문화가 이구석 저구석에 끼어들어 와서, 서로 섞이어서 새로운 문화물 이루어

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문화의 자취를 그때때만 보지 않고, 그 속에서 오늘날의 과학(科學)과 기술(技術)에 비추어 볼만한 과학, 기술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삼국시대의 과학 기술이, 조선 역사에 있어 어떠한



경주 원성대

있던가를 밝히게 될 것이다.

× ×

천문학(天文學)·앞서 얘기할 때, 몇번 말한 전수(陳壽)의 삼국지(三國誌) 동이전(東夷傳) 속에도, 일찍부터

조선 사람들의 조상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날을 가려 보고, 달과 별의 운행(運行... 돌아다니는 것)을 알고, 파종과 농사(農事)와의 관계(關係)를 알게까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오늘날의 천문학에서 얘기 할 수 있는 과학지식(科學知識)으로서의 기록(記錄)은, 삼국사기 "삼국사기...고려(高麗) 임종(仁宗) 23년, 서력 1145년에 된 삼국시대의 역사적"에 나타난 것이 아직까지 전해오는 가장 귀중한 자료이다.

삼국시대의 천문학을 말할 때는, 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천문관측(天文觀測)의 사실(事實)을 가지고, 대략 그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졌을까를 알게 된다. 그에 (例)를 삼국사기 고

구려본기(高句麗本紀)에서 찾기도 하면 좋을 것이다.

수성(淸星)의 나라날을 찍어 놓은 것을 연대(年代)만 주려 보더라도,

- 一, 민중왕(閔中王)  
3년 (46) 11월
- 二, 차대왕(次大王)  
13년 (158) 2월
- 三, 미천왕(美川王)  
16년 (315) 8월
- 四, 보경왕(寶鏡王)  
27년 (668) 4월

등의 기록에서, 수성이 나타난 방향까지를 밝히어 알도록 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유성(流星... 별뚝 떨어진다)에 관한 관측 기록도, 상세한 것을 보면 삼국사기에서 찾아보게 된다. 이런 기록은 고구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국사기 백제본기(百濟本紀)에서도 자세히

볼 수 있고, 실라본기(新羅本紀)에서는 실라 사람들이 관측했다고 분명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삼국 때에는 수성, 음성의 관측만 한 것이 아니라, 일식(日蝕...흔히 지가 띠를 먹는다)에 관해서도, 자세히 관측한 기록이 있다. 이런 관측이 사실 정확한 관측인 것은,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이 역사(歷史)에서 따져본 것으로, 현대 천문학의 지식으로써 다시 조사해서 밝혀 본 결과(結果)가 조금도 틀림없이 들어맞는 데서, 삼국시대 조선 사람들이 천문학에 대해서 훌륭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겠다.

그뿐 아니라, 천문학에서는 수학(數學) 지식에 대해서도 필요한데, 삼국시대 조선 건축(建築)에 현수(現存)의 건축학(建築學)에서 조사해 보면,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가장 수학의 원리(原理)를 응용한 것을 볼 수 있으니, 이것으로 보아 삼국 때에는, 상당히 발달된 수학의 지식을 응용하였다고 볼만하다. 이렇게 발달된 수학이 응용된 것으로서, 바깥의 천문학의 발달을 바꾸어 알 수 있다. 또 고구려 석벽의 도판(古墳) 벽화

## 동요 전깃대 어원수

전깃대 전깃대  
바람 부는 물에 나뉘히 서서  
손에 손 맞잡고 어디까지 이었나?  
산넘고 물 건너 어디까지 이었나?  
눈오시는 함경도는  
아버지 계신 곳  
저까지도 이었나?  
전깃대는 먼데 말도 전해 준다지  
귀대고 천리 밖의 말도 한다지.  
전깃대 전깃대,  
날마다 기다려도 아니오시는  
은아버지 소식 좀 전해 주머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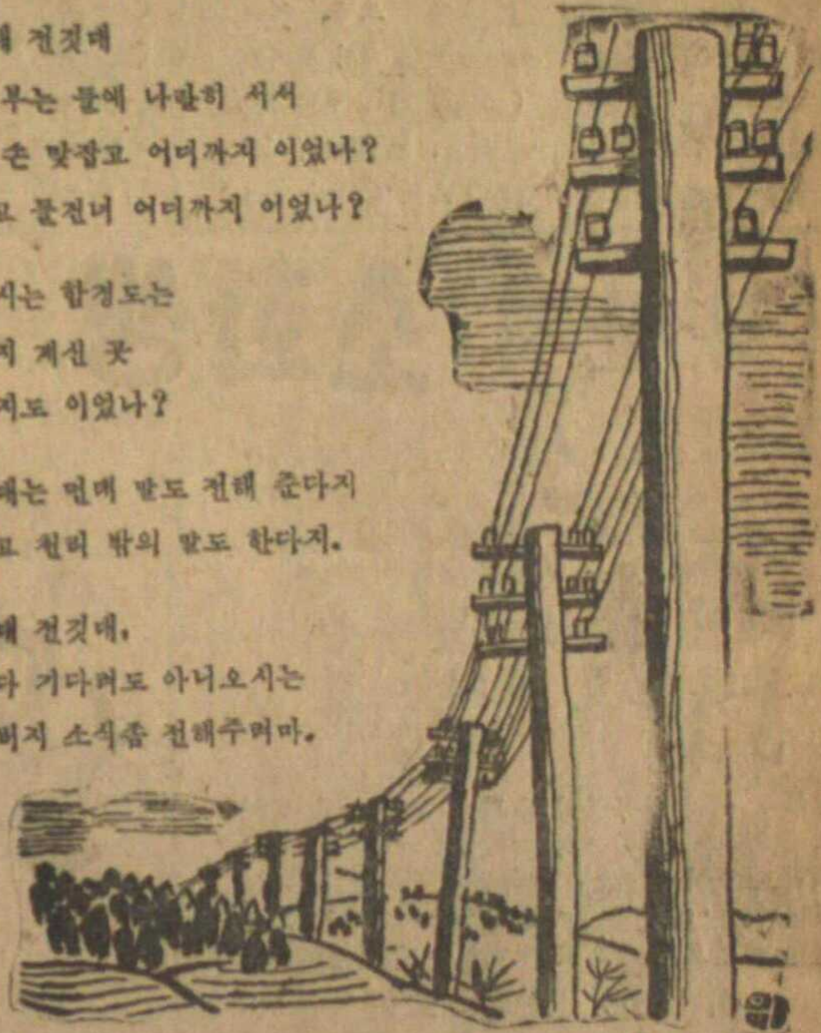


그림 · 김 의 환

(壁畫)에는, 일월성진(日·月·星辰) 사진도 “四神圖...日·月·星辰의 네 가지를 신(神)으로 보아서 그런 그림을 말한다” 라든지, 일월상도(日月象圖) 등이 남아 있으니, 이것은 곧 고구려 사람들이 갖고 있던 천문에 관한 지식을, 그때로 다시 표현(表現)

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 뿐 아니라, 실라의 서울 경주의 천정대(瞻星臺)가 있으며, 이것은 세계에 남아있는 천문관측대(天文觀測臺) 중에는 가장 오래 것이다. 지금은 경주 별관 밖 고랑 길가에 우두머니 서 있는 이 천문대는, 그 옛날 실라 사람들이 하늘

을 쳐다 보고, 해와 달이 뜨고 저며, 별이 움직이는 것을 살피던 것이다. 오늘날 상상하기는 그 먼ยุค대기에는, 천문관측에 필요한 옛날 기차(機械)를 설치(設置)하고 관측했으리라 한다. 지금 그에 관해서는 상상만 하겠지, 어느 책 구석에도 어떻게 적어 놓은 것도

있으며, 그렇게 상상할  
 무슨 기계를 설치하였  
 다고 불만할 흔적도 없  
 다. 그러나 옛날로는 대  
 규모(大規模)의 이런  
 천문대에 올라서서, 육안  
 (肉眼)으로만 하늘을  
 쳐다 보았으리라고는 생  
 각하기 어렵고, 또 보다  
 앞서 중국에서는 천문관

측기(天文觀測器)가 특  
 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서, 아직 그런 상상을 한  
 다. 중국의 구당서(舊唐  
 書)란 책의 동이전(東  
 夷傳)에서 보면, 백제  
 사람같은 중국의 원가력  
 (元嘉曆)이란 달력(曆)  
 을 썼고, 또 일관부(日  
 官部)라는 천문에 관제

하는 유물이 몇몇의 점  
 을 알았다.  
 실라에서는 그 관제(官  
 制)중에 천문관측을 위  
 주해서, 맡아보는 천문박  
 사(天文博士)라는 관  
 리(官吏)와, 누자전(漏  
 刻典...요새로 보면 특별  
 히 이런 관직은 소용 없  
 으나, 옛날은 시간을 알

아는, 즉 수막(水幕)  
 물시계(水時計)를 지키  
 고 그 시간을 조사하는  
 관직이 필요했었다.】이  
 누자박사(漏刻博士)가  
 있었던 것을 보면, 실  
 라 사람들이 천문관측에  
 얼마나 힘을 썼던가를  
 알겠다.

—계속—

# 정월치 소학생의 모습

여러 분, 반가워하십시오. 오백년 소학생의 동  
 무“소학생”은 무럭 무럭 자라서, 오는 새해의 정  
 월치부터는 8 페이지가 늘어서 모두 52페이지가  
 됩니다. 지금 보다는 더 훌륭한 기사가 더 많이  
 실릴 것입니다. (값은 10원을 올려서 100원)

**다이아몬드 말판을  
 부록으로 거저 드립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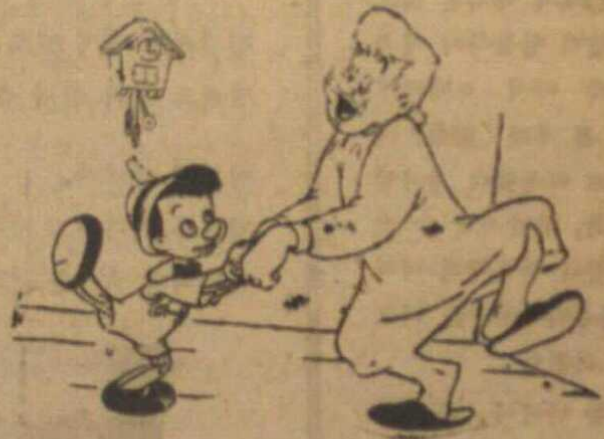
정월에 여러 동무들이 한 방에 모여 앉아 재미  
 있게 놀 수 있는 “다이아몬드 게임” 말판을  
 선택으로 박아서 독자 전부에게 부록으로 거저  
 드립니다. “다이아몬드 게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으로, 참으로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새 연재 만화 소설  
**피노치오**

미작 존 니 지 음  
 작 은 돌 꾸 음

이탈리아의 동화 피노치오는 너무나 그 이야  
 기가 재미있고 유명하여, 그 후 잉글랜드 사람이  
 혹은 프랑스 사람이, 혹은 아메리카 사람이 각  
 기 다른 피노치오를 써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피노치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러 문 앞  
 에 나타날 피노치오는, 아메리카에서 가장 만화  
 를 잘 그리는 너즈니씨가 영화로 꾸민 이야기입  
 니다. 나무토막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정말 사람이  
 되고자, 용기있게 모험하는 익살맞고도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은 피노치오)

새 연재 소녀 소설  
**하얀 쪽배**

정인택 지음  
 정 현 응 그 림

애독자 여러 분을 울리고 웃기고 또 기운차게  
 해 줄 소녀 소설 “봄의 노래”의 뒤를 이어, 이번  
 에는 소녀 소설을 정인택 선생이 새로도 써  
 주십니다. 정 선생께서는 어른을 위하여 쓴 소  
 설이 수절 편이나 되지마는, 어린이를 위하여  
 소설을 쓰시기는 “봄의 노래”가 처음이었는데,  
 이 번에는 더욱 건강하시어 조용한 밤을 일부러  
 골라, 지금 열심히 쓰시는 중입니다. 과연 일  
 마나 훌륭한 소설이 나올지요. 삽화는 여러 분  
 이 잘 아시는 정현응 선생이 맡아 주십니다.

여행은 오랜 옛날부터 중요  
한 것이었고, 또 물건을 나르기  
위하여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  
지 방법을 생각하였 것입니다.

노끈, 밧줄, 가방 등은 그 때에  
생각하였 것이며, 조금 후에 중  
국, 구라와 등에서는 끌것, 가마  
등도 만들어 쓰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북부 인디안들은 눈길  
을 걷기 위하여 눈신발을, 북부  
구라와 사람들은 스키이를 만  
들었고, 에스키모 사람들은 별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별개" 나 인디안이 만든  
"도보간"이란 것은 개가 끌었으  
며, 구라와서는 사슴이 끌었습  
니다. 그리고 곳에 따라서는 말,  
소, 악대, 로끼리 등을 타고 여



행 혹은 짐을 날렸습니다. 바퀴  
가 발명되기 전, 인디안은 "트  
라보이스" 즉 평원(平原)에서 흔  
히 쓰는 바퀴 없는 마차를 발  
명했고, 그 후 수송(輸送)이 더  
욱 편리하게 된 것은 바퀴의 발  
명입니다. 이리하여 점점 발달된  
후 동양에 인력거가 있을 무렵  
으로부터 3000년 전에, 벌써 예  
프트와 리만, 로오마에서는 이물  
(二輪)마차를 사용했습니다.

역마차는 철도가 발전하기 전  
먼 거리를 여행하는데 사용했고,

그 후 역학적(力學的)힘이 발견  
됨으로써, 수송에 동물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두번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증기기관과  
전기는, 철도, 전차, 승강기, 지  
하철도 등에 쓰이게 되었으며,  
그 후 화물차, 버스, 추력, 자전  
거, 자동차 등이 많이 만들어졌  
습니다. 만일 이 후, 수송에 또  
다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  
그것은 원자력(原子力)이 사용  
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  
나 아직 기계가 발달되지 못한  
우리 나라에선, 마차와 소가 수  
송에 많이 쓰이고 있는 형편입  
니다.

(뒤 결장 그림 설명)

## 애독자 아현 상라기

### ☆ 문 제 ☆

1. "소학생" 61호 동화 "응명일 편지" 가  
출때, 옥이가 누나한테 부친 편지 속에, ① 은  
뻘있는 어찌서 넣었으며, ② 빨간 연필로 그  
린 동그라미는 무슨 뜻일까요?

2. "네, 훌륭한  
한 사람이 되시  
발드시 저의 원  
어머니 아버지  
를 찾아 내집에  
요." 이것은 어  
떤 이야기 가운  
데 있는 말이며,



누가 말한 것인가요? (소학생 11월치에 있음)

3. 위의 그림은 "소학생" 그림축담에 나온  
그림입니다. 무슨 축담일까요?



세 문제를 바로 맞추신 분에게는 다음과 같  
은 상을 드리겠습니다.

### 상 품

1등 • 10명 = "그림 애기책"과 "소학생" 2  
월치 한권씩.

2등 • 30명 = "소학생" 2월치 한권씩.

마감 • 12월 30일 ★ 발표 • "소학생" 8월치  
보내실 곳 • 서울 鍾路 2街 永保빌딩

兒協 "소학생" 編輯部

주의할 것 • 보내시는 분의 학교, 학년, 이름  
을 꼭꼭히 쓰고, 봉투 겉에는 "현상" 이라고 쓰  
십시오. (맞추신 분이 많은 경우에는 제비를 뽑  
아서 정하겠습니다.)

# 少年三国志

(11)

박 태 원  
김 기 창 그림



## 제 9 장 서 서(徐庶)와 그 어머니 (1)

### 一, 수경선생(水鏡先生)

현덕이 워낙한 지경을 요행으  
르 벗어나, 서남쪽을 바라고 말  
을 달리기 얼마만에, 문득 고개  
를 들어 보니 어느 틈엔가 해가  
젓엇뉘엿 서산을 넘으려 한다.

(어디서 하룻밤을 자고 가노  
?...)

말을 멈추고 둘러 보려니까,  
마침 목동(牧童)하나이 저편으  
로서 소를 타고 오며 시름 없이  
피리를 분다.

(내가 너만 못하구나!.....)

현덕이 탄좌를 따져 앉으며  
멀거니 바라보고 있노라, 목  
동도 소를 멈추고 서서 어우히  
이편을 마주 바라보다가, 문득  
한마디 묻는다.

“장군은 유 현덕이 아니신가  
요?”

현덕은 깜짝 놀랐다.

“네 촌구석에 있는 아이가 내

○

이름은 어떻게 아느냐?”

“네 저의 스승께서 늘 그러시  
드군요. 유 현덕이란 이가 키  
는 칠척 오촌이요, 팔이 길어  
무릎을 지나고, 귀가 커서 자  
기 눈으로 자기 귀를 보는데,  
그 분이야말로 영웅이시라고  
... 그래 알아 피었지요.”

“네 스승이 누구시나?”

“사마 휘(司馬徽)시요. 자는  
덕조(德操)시요, 도호(道號)  
는 수경선생(水鏡先生) 이시  
랍니다.”

“그때 수경선생께서 어디 사  
시니?”

“저기 추풀어 피지요? 그 추  
에 바로 장원이 있습니다.”

“그럼 나를 그리로 데려다 달  
고.”

현덕이 목동을 따라 그곳에  
이르러, 마약 문을 들어 서려니  
까, 마침 안으로서 거문고 같은  
소리자 들려 막는다.

현덕은 안으로 들어 가려는  
목동을 손짓을 해서 멈추고 귀  
를 기울이었다. 하도 소리가 맑  
고 아름다워, 끝까지 듣고 싶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은고 소리는 곧 그  
치고, 한 사람이 들로 내려 서며  
흔жат말을 한다.

“검은고 소리가 맑고 그윽하  
타가 잘자기 좋아하니, 필시  
영웅이 깃들고 있는계야!”

목동이 현덕을 돌아 보고 일  
러 준다.

“저 어른이 저의 스승이세요.”

현덕이 앞으로 나가 인사할  
하니, 수경선생은 일복에 웃을  
을 머우고 말한다.

“얼마나 놀라셨소? 그래도 화  
를 믿어셨으니 다행이세요.”

대체 어떻게 알고 었나...하여  
현덕은 놀라기를 따져 았았다.

초당으로 들어 가서 손과 주  
인이 자리를 나누어 앉자, 수경  
은 물었다.

“내가 장군 말씀을 들은계작  
오랜데, 어찌하여 여짜도루

역경(逆境)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나요?”

현덕은 대답하였다.

“저의 명도(命運)가 워낙 험난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아니야, 장군 좌우에 사람이 없어서 그럴습니다.”

“사람이야 있지요. 문(文)에는 손 전·미 속의 무리가 있고, 무(武)에는 관 우·장 비·조 윤의 무리가 있어서, 세가 어찌까지 그들에게 힘입은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야 관 우·장 비·조 윤 같은 장수들은 현하에 드문 명장이지만, 다만 그들을 관 부

가서 쓸 무급의 없는적 자책(可惜)하오그러. 손 전이나 미 속 같은 무리들이야 한낱 백면서생(白面書生)이지 왕망 세상을 전지는 제주는 아니니까요.”

“저도 배양 어진이들을 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만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천하의 기재(奇才)야 모두 이곳에 모여 있지. 장군이 한번 몸소 구하여 보시구려.”

“대체 천하 기재가 누구니까?”

“외룡(臥龍)과 봉주(鳳雛) 둘 가운데 한 사람만 얻으면 가히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으리다.”

“외룡·봉주란 과연 누구가요?”

현덕은 급히 물었으나, 수경은 더 말하지 않고, 손벽을 치며,

“하, 하, 하, 하하...”

크게 웃을 뿐이다.

현덕이 다시 물어 보려할 때 수경은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천히 쉬시오.”

몸, 동자에게 명하여 술과 밥을 갖추어 대접한다.

상을 물리고 나자, 현덕은 초당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으나, 수경의 하던 말을 생각하고 잠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날, 날이 밝거늘 기다리어, 현덕은 수경을 보코 다시 물었다.

“어제 말씀하시던 외룡·봉주란 과연 누구니까?”

그때나 수경은 역시 웃을 뿐이다.

현덕은 그에게 공손히 절하고 절하였다.

“선생께서는 저와 함께 나가시어 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때나 수경은 듣지 않는다.

“어제 나보다 심배나 나은 사람이 장군을 도와 드릴 것이요. 몸소 찾아 보시지요.”

둘 셋 사람이 새벽녘 여야가를 하고 있을 때, 문득 밖에 사람들이 풀대는 소리가 들리며, 등저가 들어 와서 보한다.

“어떤 장군이 글썽 수덕명을





거느리고 촌으로 들어 옵니다.”

현덕이 마음에 의심하여 분주히 나가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조 운이었다.

본래 양양성에서 조 운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밖에 인마(人馬)가 등하는 것을 보고 급히 안으로 들어 가 살피니, 뜻밖에도 현덕의 모양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 깜짝 놀라 판사로 나와서 알아 보니, 채 모가 군사를 이끌고 서문으로 향하여 갔다고 한다. 조 운이 급히 말에 올라 삼백명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쫓아 가려니까, 서문에서 미약 돌아 들어 오는 채 모와 만났다. 그에게 물어 보아도 현덕의 소식은 알 수 없고, 서문 밖은 끝 앞을 가로 막은 단제라, 도무지 현덕의 종적(蹤迹)을 찾을 길이 없어, 신야로 돌아 갔다가, 다시 밤을 도아 이곳까지 쫓아 이른 것이다.

현덕은 종종히 수정선생과 작별하고, 조 운으로 더불어 신야

로 돌아 갔다.

## 二, 단 복 (單 福)

신야로 돌아 가자, 현덕은 무리들을 모아 놓고, 양양에서 채 모의 화(禍)를 피하여 적노로 단제를 뛰어 넘은 이야기를 하였다. 듣고나자 손 전이 나서서 곧 이번 일을 유 표에게 알리자고 주장한다.

“유장군께서는 모르고 지실 일이요, 이것은 꼭 채 모의 무리들이 몰래 꾸며서 한 노릇일 것이니, 자세한 사정을 한번 말씀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현덕은 옮겨 생각하고 글을 써서 손 전에게 주었다.

손 전이 혈주로 가서 유 표앞에 나아가 현덕의 글을 올리고, 양양에서 채 모가 해치며 하면 말을 자세히 아뢰자, 유 표는 크게 노하여, 곧 채 모를 잡아 내어다 목을 베려 하였다.

그러나 병풍 뒤에서 채부인이 울며 달려 나오고, 손 전도 간

절히 받아 었며, 유 표는 비록 내 그를 죽이기까지는 않았으나, 노여움은 울처럼 잘라 앉지 않았다.

그는 한바탕 크게 구짖어 채 모를 물리친 다음, 즉시 장차 유 기로 하여금 손 전을 따라 현덕에게로 가서 사죄를 드피게 하였다.

유 기가 명을 받고 신야에 이르자, 현덕은 곧 잔치를 베풀어 그를 대접하였다.

술이 몇 잔씩 들었을 때, 갑자기 무슨 눈물이 유 기의 뺨 위를 흘러 내린다. 현덕이 놀라서 그 까닭을 묻자, 유 기는 대답한다.

“저의 제모 채씨가 여왕 계를 모래(謀害)하려 하건만,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면할 도리가 없습니디며, 부마 숙부님께서 좋은 방도를 지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현덕은 가엾은 조카에게 일러 줄 좋은 말이 없었다. 오직 제모야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 너만 극진히 도도들 하면 자연 무사하리라고 위로할 뿐이다.

울며 떠나는 유 기를 성 탐까지 전송하고 돌아 오는 길에, 현덕은 문득 간 사나이가 이상한 차림차림으로 노래를 부르며 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부르는 노래 구절에는, 산 속의 어진 선비는 모처럼 영특한 주인에게 몸을 바치려 하지만, 영특한 주인은 어진 선비를 구한다 구한다 하면서, 도둑이 나를 불러 본다...하는 말이

있었다.

현덕은 속으로,

(이 사람이 혹시나 수경이 딸  
하면 화룡·봉주가 아닌가?  
.....)

그렇게 생각하고, 즉시 그를  
제리고 들어가, 그 성명을 물었  
다.

그는 스스로 단복(單願)이  
라 말하였다. 아마도 화룡·봉주  
는 아닌 모양이었으나, 잠시 그  
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여 보아  
도, 현덕은 그의 아는 것이 많  
고 생각이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단복은 현덕에게 군사를 더  
받고 받을 더 사를이요, 군량을  
더 모아 부어야 할 것을 말하였  
다.

“조 조는 현 소를 치 없애고  
허도로 돌아간 뒤에, 항상  
철주를 살키려는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인·  
이전·여광·여상(曹仁·李  
典·呂曠·呂翔)의 무리들에  
게 삼만명 군사를 주어 번성  
(樊城)에 둔치게 하고, 가만  
히 양양을 엿보는 것으로 너  
너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마땅히 방비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현덕은 곧 단복으로 군사(軍  
願)를 삼고, 본부인마(本部人  
馬)를 조면(操練)시키게 하였  
다.

그로서 얼마 지나지 않아 람  
박는 보하기를, 여광·여상 두  
장수가 군사 오천을 이끌고 파  
도 선야를 향하여 지척 떨어진  
다고 한다.

현덕이 곧 단복을 칭하여 제  
묘를 물으니, 그는 대답한다.

“운장은 군사를 이끌고 원편  
에서 나와 적군의 중로를 막  
게 하고, 장비는 바른편에서  
나와 적군의 뒷길을 막게 하  
고, 주공께서는 조 운과 함께  
군사를 배서어 앞길을 막으시  
면, 아주 쉽사리 적병을 꺼지  
실 것입니다.”

현덕은 그 제고를 좇아, 즉시  
관우와 장비를 보낸 뒤에, 자  
기는 단복·조 운과 함께 군사  
이천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  
갔다.

오리를 미리 다 못가서, 산

뒤에 티끌이 크게 일어나며 여  
광·여상이 군사를 이끌고 나온  
다.

전을 치고 서로 대하자, 현덕  
은 앞으로 나서서 크게 불렀다.

“대체 네가 누구기에 내 지경  
을 범하려 하느냐?”

여광이 나서며 대답한다.

“나는 대장 여광으로, 조 승  
상의 분부를 받자와 특히 너  
를 사로잡으려 온 길이다!”

현덕은 크게 노하여, 곧 조 운  
을 시켜서 나가 싸우게 하였다.

두 장수가 서로 어울어져 싸우  
기 무어함이 못되어, 조 운은  
한 창에 여광을 찌러 말 아래





도 기쿠리도리도.

현덕이 곧 군사를 물고 끌어 가자, 여 상은 당해낼 길이 없어, 그대로 군사를 걸우어 도망한다.

그러나 얼마를 못가져 걸가로 부터 한때 군사가 뛰쳐 나오니, 앞선 대장은 곧 관운장이다.

한바탕 싸움에 절반 군사를 잃고, 여 상이 가까스로 걸을 꿰고 달리기 섬리쯤 하여, 다시 한때 군사가 내달으며, 앞선 대장이 창을 꽂아 잡고,

“장 익덕이 예 있다!”

백려 같이 소리치고 바로 여 상에게 달려 드니, 여 상은 머 쳐 손을 놀려 볼 사이도 없이 장 비 창에 찔려 그대로 밧에서 떨어져 죽는다.

주장(主將)을 잃은 군사에게 갈광 절망 복숨을 도모하게끔 바쁜 것을 다시 뒤쫓아 절반 털 어를 사로잡고, 현덕은 설야로 돌아 오자, 단 복을 후려 대집 하고 군사들을 크게 상주었다.



한편, 국군 군사들이 현덕으

로 돌아가서, 이번 싸움에 여 광 여 상이 죽고, 많은 군사가 사로잡힌 말을 하자, 조 인은 크게 놀랐다.

곧 이 전을 청하여 의논하니, 이 전은 말한다.

“여 광·여 상이 너무 격을 업 신여졌다가 이처럼 패를 보 았으니, 우리는 서둘러 움직 이지 말고 즉시 승상께 말씀 하여,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단번에 무렬히 비라는 것이 상책일줄 압니다.”

그러나 조 인은 그 의견에는 반대이었다.

“이제 두 장수가 죽고 또 많은 군사를 잃었으니, 어찌 이 원수를 곧 갚지 않아 되겠소? 신야 같은 적은 고을 하나 치 는데 구태어 승상의 대군을 수 고롭게 할 것도 없을 것이요.”

“어립니다. 유 비는 연견(人傑)이라 우습지 볼 수 없습디 다.”

한편, 유 비, 정도 함수 유수.

“병법(兵法)에도 말하기를, 저편을 알고 이편을 알면 백 번 싸워 백 번 이긴다고 하였 습니다. 내가 길이 나서 그러 는 것이 아니라, 다시 패를 보지나 앗을까 두려워 그러는 것이요.”

조 인은 발끈 노라였다.

“공은 두 마음을 품고 있소? 나는 죽 을 비를 사로잡으려 고 그러는대...”

“그럼, 장군께서 거어코 가서 졌다면, 저는 뒤에 남아서 성 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 인은 더욱 노기가 동동하여, 소리를 버럭 쳐놓고 “만약에 내가 나파고 갈어 한 걸타면, 나는 죽 비가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믿겠다!”

어찌 이르러 이 전은 어찌하 는 도리가 없다.

그는 마침내 조 인과 함께 군사 이만 오천을 거느리고, 내물 건너 신야로 향하였다.

그러나 단 복의 뛰어난 계략 은, 벌써 여 인이 앗을 것을 예측(豫測)하고 앗았다.

앞서 싸움에 크게 이기고 돌아 오자, 그는 즉시 현덕을 보무 말하였던 것이다.

“지금 조 인이 번성에 굳쳐고 있으니, 여 광·여 상이 죽 은 것을 알면, 내가 팔드시 대군을 이끌고 올 것임이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 려야 좋소?”

“저희가 군사를 다 끌어 가져 고 온다면 번성이 텅 빌 것이 니,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성

을 배웠을 뿐이지요.”

“백제 어떻게 배웠는단 말이  
요?”

현덕이 물자, 단 복은 곧 그  
의 귀에다 태고 무엇이든 가만  
히 속삭이었다.

이리하여, 이절에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밤마가  
보라피, 조 인이 대군을 이끌고  
저경 밖에서 이르렀다고 한다.

단 복은 곧 현덕과 함께 군사  
를 거느리고 나가서 적병을 맞  
았다.

전 치고 서로 대하자, 조 운  
이 말을 달리어 나가니, 조 인  
은 이 전을 시켜 나가 싸우게  
한다.

그러나 이 전은 조 운의 지수  
가 아니었다. 수성함을 어울어  
져 싸우다가 그는 마침내 당대  
내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곧 말  
머리를 풀이키어 저의 전공으로  
말아 들어가, 조 인을 보고 말  
하였다.

“역시 우습게 볼 적군이 아닙  
니다. 곧 번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조 인은 크게 노하였다.

“네가 출전(出陣)하기 전부터  
군심(軍心)을 어지럽게 하고,  
또 이제 싸움에 겹으니, 그러  
가 마땅히 죽어서 싸다!”

곧 도부수를 꾸짖어, 끌어 내  
어다가 목을 베라 하는 것을,  
수하의 모든 장수들이 말들을  
하여, 이 전은 겨우 죽을 것을  
번하였다.

조 인은 그 이튿날 자기가 몸  
소 전대(前隊)가 되어, 북 치고  
나가서 전을 친 뒤에는 사람을

# 동요 돌타령

협동엽

민개불이 뻔뻔 무슨 돌일까?  
할아버지 엄랑에 부딪는 이지,  
천둥 소리 우르릉, 무슨 돌일까?  
밀 갈 때 밭 도늘 땀들여지요.

얼굴은 못났어도 귀염 받기는?  
화초밭에 곰보들이 제일이구요  
얼굴은 뻔뻔해도 천대 받기는?  
시궁창서 덩구는 숫들이지요.



그림 • 김 의환

시켜 현덕에게 물었다.

“이것이 어떤 전(陣)인지 네  
가 알아 내겠느냐?”

단 복은 즉시 높은 곳에 올라  
조 인의 전을 두루 살펴 보고나  
서 현덕에게 일러 주었다.

“저것은 팔문금쇄전(八門金鎖  
陣)입니다. 생문(生門)과 결  
문(景門)과 개문(開門)으로  
들어 가면 길(吉)하고, 상문  
(傷門)과 정문(驚門)과 휴문  
(休門)으로 들어 가면 죽고,  
두문(杜門)과 사문(死門)으로  
들어가면 망(亡)하는 것인데,

이제 여덟 문을 벌려 세운 팔  
이 보기에는 그림법 하나, 다  
만 중심이 허술합니다. 이제  
우리가 동남각(東南角)의 생  
문(生門)으로 쳐 들어 가서  
정서(正西)의 정문(景門)으로  
나오면, 저 전이 크게 어지러  
울 것입니다.”

듣고나자 현덕은 곧 영을 내  
렸다.

조 운은 오백 명 군사를 이끌  
고 말에 높이 올라, 동남각으로  
부러 아우성을 치며 중군(中軍)  
을 쳐들어 갔다. 이것을 보자

조인은 복판을 향하여 끌려갈  
을 달린다. 곧, 정문(靜門)으로  
그를 끌여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조인은 그 뒤를 쫓지  
않고, 정서의 정문(靜門)으로  
나왔다가 다시 동남각으로 돌아  
들었다.

마침내 조인의 군사가 크게  
어지러워진다.

이것을 보고 현덕은 곧 군사  
를 휘몰아 들이쳤다.

조인은 잔마당 싸움에 크게  
패하고 물러나자, 그제서야 비  
로소 이 전의 말이 옳았던 것을  
깨달고, 다시 그를 청하여 일을  
의논하였다.

“필시 유 비 추하에 능한 사  
람이 있는 것 같소 그대.”

“저는 암만하여도 번성이 강  
금합니다.”

“오늘 밤에 적채(劫寨)를 해  
보아서 만약 이기지 못하거든  
그 때는 곧 번성으로 돌아가  
기로 합시다.”

“적채도 좋겠지만, 유 비가  
미리 다 준비하고나 있지 않  
을까요?”

그러나 조인은 웃고,  
“원,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야  
어떻게 싸움을 하여 본단 받

\* 尹石重 先生의 童謠 選集 \*

굴 령 쇠

스물 다섯햇동안 지으신 노래 가운데에서 예순  
편을 추려내어 장장이 그림을 그려 넣은 아름다  
운 그림 동요집! (그림 정 현용 선생님)

책값 220 원 \* 수선사 발행 \* 경상남도

이요?”

마침내 이 전의 하는 말을 들  
지 않고, 자기가 전대가 되고  
이 전으로 후응(後應)하게 한  
뒤, 그날 밤에 유 비의 영채를  
바라고 군사를 몰았다.

그러나 그가 유 비의 영채 앞  
에 이르자, 갑자기 그 안으로서  
화광(火光)이 하늘을 찌르며 잠  
간 동안에 채책(寨柵)을 모조리  
살라 버린다.

그제야 준비가 있는줄을 깨달  
고, 조인이 급히 군사를 몰려  
러 할 때, 북 소리 크게 울리는  
곳에 조운이 군사를 몰아 달려  
온다.

조인은 미처 군사를 수습하  
지도 못하고, 저의 영채도 버  
려 분재, 그 때로 말을 달리어  
넷가에까지 이르렀다.

그 곳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  
며 배를 얻어 마약 강을 건너러 할



★ 원 중 예

수동이...선생님,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라요?

선생님...그때,

수동이...그러면 동물원에 있는 원

숭이는, 언제 사

람이 피나요?

선생님...?? (서

울 협성고 6년

황 은석)



★ 토 인

아버지...너 어디

수동이 말해 봐

라.

수동이...무엇 말

씀에요?

아버지...토인은 왜 검은지 아니?

수동이...그까짓 것을 몰라요, 불

러 이불이 검은이니까 그렇죠.



데, 문득 한데 군사가 또 내달으  
니, 앞선 대장은 풀 잘 비다.

조인이 죽기로써 그와 싸우  
는 중에, 마침 이적이 군사들  
이 끌고 달려 와서, 간신히 위태  
로운 지경은 벗어났으나, 내를  
견제하는 중에도 물에 빠져 죽는  
군사가 떠돌아다닌다.

조인·이적은 겨우 남은 군  
사를 수습하여 번성으로 돌아  
갔다.

성 앞에 이르러 그들이 문을  
열라고 소리치자, 성 위에서 북

소리 한번 크게 울리며, 한 장  
수가 새 나서며,

“내가 번성을 위한지 이미 오  
랜데, 문을 열라는 늙은 누구  
냐?”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갑작 놀라 쳐다 보니 그는 풀  
발 운장이다.

조인과 이적은 그대로 말  
머리를 둘러서 허도를 바라고  
방질을 달렸다.

—계속—

소년 삼국지 어려운 말 풀이

▲목동(牧童)···마소를 치는

(서울 중보 5가 125의 2 그  
기법)

★ 아기의 이

동생···아기가 남  
서부의 제 이가  
한나논지 아우?  
형···홍! 너는 네  
가 바본을 아너  
? 벌칙 나는 알



아이.

▲시름없이···아무 생각이 없  
이.

▲역경(逆境)···뜻대로 되지  
않는 불행한 경우.

▲명도(命途)···운명(運命).  
관자.

▲가식(可惜)···잡으로 아까운  
것.

▲백면서생(白面書生)···글만  
읽고, 세상 일에는 도무지 경험  
이 없는 사람.

▲기적(奇才)···세상에 드문  
재주.

▲인마(人馬)···사람과 말.

▲종적(蹤跡)···뒤에 남은 형  
적. 자취. 간 곳.

▲모래(謀害)···피를 세서 남  
을 때치는 것.

▲군사(軍師)···군대의 참모  
(參謀).

▲인재(人材)···뛰어난 인재  
(人材).

▲병법(兵法)···전쟁에 관한  
방법

▲예측(豫測)···미리 헤아리는  
것.

▲출진(出陣)···전쟁에 나가는  
것.

고 있다.

동생···아기가 말로 안하는 데 어  
떻게 안담.

형···그때도 나는 알지, 가보치?  
자?

동생···응.

형···엄마 뒷쪽지 제물가파 그런  
것이야.

동생···?? 하하하 (서울 북아현  
동 1의 315 점 이적)

이적  
참심상

고무로 만든 물건 잘  
두는 법

고무레거나 그밖에 고무로  
만든 물건을 물 때에는, 그  
물에서 물기가 없도록 잘 말  
려가지고, 밀가루나 분 같은  
것을 안에다 골고루 발라서  
두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쪽이 서로 붙어 붙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나  
프라린 같은 벌레 죽는 약과  
같이 넣어 두면, 화학작용이  
일어나 고무의 탄력이 없어  
지기 쉽습니다.

▲군심(軍心)···군사들의 마  
음.

▲동남각(東南角)···동쪽과 남  
쪽의 사이되는 방위(方位).

▲정서(正西)···똑바른 서쪽.

▲첩재(劫寨)···적(敵)의 영寨  
를 불의(不意)에 습격하는 것.

▲후응(後應)···뒤에서 응하는  
것.

▲재격(寨間)···영寨를 둘러  
막은 목재(알뿌를 나란히 막아  
서 만든 우리.)

★ 비



물이···엄마, 왜 비  
가 와요?

엄마···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  
럼 너는 아너?

물이···저마파, 땅

이 더러워서 말이지, 하느님이

욕망시켜 주는 거지 뭐유.  
엄마···?? (서울 매봉로 3년 상  
경적)



삼수 좋고 역사 깊은 천년 고도, 위로는 송악산  
 일 우뚝 솟아 있고, 앞으로는 영랑 꽃밭의 용수산  
 을 바라다 보는, 아늑한 곳에 자리잡은 개성 만월  
 학교는, 그 규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조선서 글지라는 학교입니다.

거금으로부터 51년 전 1898년 11월 11일 개교  
 이래, 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공헌하였습

니다. 과거 수십년을 오로지 교육 사업에 종사하  
 시고, 현재 만월의 발전을 위하여 생활을 장구화  
 시는 김 광수 교장 선생님과, 교감 별 명연 선생  
 님, 그리고 33명의 선생님 밑에서, 2,500명이  
 나 되는 조선의 꽃봉오리들이, 씩씩하고 활기차  
 자라나며, 공부에 전심하고 있습니다. (가자)

## 제 7 회 개성 만월 학교치

동요 나 비

3의5 율 계속

꽃속에서 잠 자는  
 귀여운 나비는  
 잠만 깨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만 추어요.



## 작문 즐거운 운동회

5의4 정 속자

삼일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  
 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 왔습니  
 다. 나뭇잎들은 벌써 노란 옷을  
 갈아입고, 단풍은 어느덧 빨간  
 당겨를 더리고, 밭에는 곡식들  
 이 누룻 누룻 무르익어가는 가  
 을이 들어왔습니다. 가을이 들  
 아오니까 얼핏 생각나는 것은  
 즐거운 운동회입니다. 어떻게  
 "운동회가 들어왔으면" 하고 매  
 일 같이 매일 같이 기다리던 차  
 에, 운동회 연습이 시작되었

고, 그리고 기다리던 운동회는  
 하루 앞두고 다가왔습니다. 어  
 머니께서는 내일 잘 준비에 바르  
 시고, 나는 "머리머" "땀쓰" "샤  
 쓰" 이런 운동복들을 준비해 두  
 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빙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내일 비가  
 오겠우?"하고 물어보니까, 어머  
 니께서는 "오늘 왜 그런지 땀이  
 조금 땀구나." 하시며 말씀하시  
 기에, 나는 걱 걱정이 되었습니  
 다. 걱정을 하며 지리에 숫자  
 전등을 켜습니다. 캄캄한 빙에  
 서 잠은 안오고 하여, 눈을 뜨  
 고 있으니까 저루해서 못걸

더것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강  
 공박 잤는지, 눈을 떠보니 벌써  
 먼동이 르고, 어머니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나도 빨리 일어나  
 간장을 열어보니, 맑게 개인 하  
 늘에는 구름 한점 없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놓고 안심하였습니  
 다. 어머니께서 벌써 일어나서  
 서 준비에 바르셨습니다. 나는  
 빨리 일어나 학교장 모든 준비  
 를 끝마치고, 어머니하고 같이  
 학교를 향하여 걸었습니다. 교  
 문에 이르니 만국기가 바람에 휘  
 날리고, 깨끗하게 쓸어놓은 넓은  
 마당 천막 속에서는, 음악대의  
 음악소리가 울려 풍연히 어찌가  
 으쭉어리고, 개진문과 출입문  
 도 으리으리하게 차려 놓은 모  
 양이, 마치 하늘에나 온 것 같이  
 신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에는 물론 내벌석까지도 밀하나  
 더러 놓을 수가 없이 사람이 많  
 이 모여들었습니다. 조금 있자  
 모이라는 종소리가 울리며 운동  
 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성대한  
 조치가 끝나자 음악대에 맞추어

# ★ 나의 당부 ★

계명 대학 교장 김 상 수 선생

## 씩씩한 건강

씩씩한 건강을 갖는 것은 우리 인민에게 교육 목적의 첫조건입니다. 이 이 존 대한 이후 세리 사립들에게 기 일 세를 더 가장 많이 버림치는 일이 무슨 할인지 이질나며우 자유로운 말 인가. 이미 어린이들이 이 자유를 사 할지나리오.

“자유 그것 아니면 죽음을 보오.” 라는 말이 자유는 필요로 생애(生活) 이 상하 있어되고, 생애(生活)이다. 그러나 이무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 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보지 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부자입니다. 물이 천장까지 못하 고 갈갈 넘쳐서 맑은 시원시원 저 유스럽지 못한 사람이 그중 있습니 마. 그런데도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은 어떤이든 있는 건강(健康)입니다. 씩씩한 건강입니다. 세 몸 건강하고 사)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 니라.

씩씩한 건강을 가진 어린이만이 저 유롭게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여 기 보일때 성과를 위하여 밟는 일이다. 또 노의 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씩 씩한 건강을 기성의 우리와 이국지사 인이, 흥미가나 왜까지 무서운 일이나 라는도 민중의 어떤의 고기의 독일 호 귀하여 구운이 바를 수 있는 가 자유 기성의 것입니다. 물이 천장까지 못하고서는 자기들 수습이나 나라를 위해 서나, 자유도 할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등차 우리 나라의 온도가 적고 불투 환 일만이 좀 어린이들! 우리는 민의 씩씩한 건강을 갖게 할바입니다.

- 씩씩한 건강을 가지려면.
- ① 양식(養食) 골라 먹기. 거서(거서) 환경(環境)을 깨끗한 일사(일사).
  - ② 단련(斷練) 자기 체질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일사(일사).



도화 4의3 임 근 식

꼭 움켜쥐고 응원도 못하였습 니다. 그런데 아차! 백군은 백 동을 잘못 주었습니다. 빌세 총 군은 백군을 빼어 놓았습니다. 분하게도 백군이 졌습니다. 그 려면 갑자기 날이 흐려지며 비 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 머니를 따라 강당으로 들어가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잠간 쉬고 있노라니까, 또다시 해가 뵈습 니다. 나는 기뻐하면서 나아가 운동회를 계속하고, 오후 여섯시 에 무사히 운동회는 끝났습니 다.

운동가를 부르고 나서, 일제히 발을 맞춰 제자리로 간 다음, 제 일 번씩 일학년의 과자 따먹기 경주가 시작되어, 제멋처 손벽처 며 구경하던 중, 어느덧 아홉째 번인 우리들의 공놀기 차례가 되 었습니다. 공놀기는 거니만 장 대에다 등그라미를 눈이 걸어 놓고, 그 속애다 푼을 넣으면 발

아가지고 튀어오는 재미있는 경 즐입니다. “땅”하는 총소리와 함 께 시작 되었습니다. 흥군, 백군, 양견에서는 열심 이 응원을 합니다. 나는 내 짝 과 물이서 손목을 붙잡고 튀었 습니다. 빨리 가서 공을 넣고 나는 받아가지고 튀어 마침내 백군이 이겼습니다. 다 끝나지

고 불어오니까, 거기 있던 응원단장과 여 머 아이들은 손바닥 을 치며 반겼습니 다. 이렇게 해서 오 전 중 끝마감인 리레 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리레이는 어찌 아슬 아슬 하였던지, 우리들은 두 주먹을

# 씩씩한 건강 번치있는 손

습자 5년 김 울 희

乙酉文化社 開城文局  
영 흥 서 점  
**永興書店**

잡지 “소학생”을 원시 하여 여러 분에게 소용 되는 책은 다 있으며, 개설에 제신. 여러 분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 랍니다.

開城府 南大門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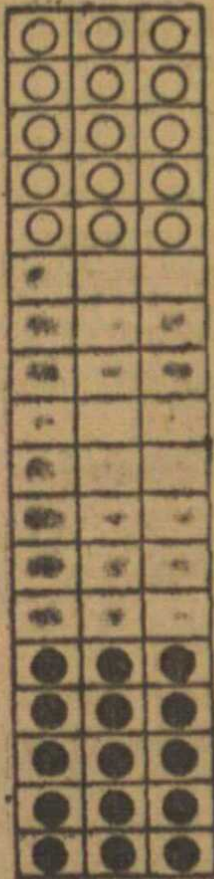
**★바둑돌 놀이★**

날이 추워지면 바깥에 나가  
자 운동할 기회가 매우 드물지  
됩니다. 그러면, 풀몬 방에서  
공부도 하고 잡지도 읽고 그림  
도 그려지만, 동무끼리 또는  
원이나 동생들 하고 정답게 화  
로 앞에 모여 앉아 노는 장난도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바둑돌 뛰어넘기”라는 놀이는  
두 사람이 경쟁하는 재밌고도  
머리를 써야 할 장난으로, 참으  
로 귀여운 놀이나 꼭 한번 이런  
저를 방학 동안에 해보십시오.

① 먼저 하얀 돌과 까만 돌  
을 노는 다음, 바둑판 위 예술  
을 마음대로 셋정하고, 그 위에  
다 한줄에 다섯개씩 양쪽 모두  
세 줄; 그리니까 즉 돌 15개  
씩을 늘어 놓습니다. 본보기를  
보여드리면 그림과 같습니다.

② 이렇게 한 다음에는, 하얀  
돌 뛰자는 하얀 돌을, 까만 돌  
뛰자는 까만돌을, 다치말 하면  
양쪽이 다 자기의 돌을 하나씩  
옮겨서, 먼저 적의 전지(陣  
地)로 들어가, 세제씩 가로 다  
섯줄을 뛰어 넘는 편이 이기는  
것입니다.

● 그리다 이 움직이는 공간  
에 적의 돌을 만났을 때는, 적의  
돌을 뛰어 넘을 수 있습니  
다. 이것이 두개 계속해 있으  
면 한꺼번에 두개를, 세개가 제  
속해 있으면 세개를 뛰어 넘게  
됩니다. 그러



니까 자기는  
질 수 있는대  
로 적의 돌을  
넘지 말고, 그  
적에게는 자기  
돌을 질 수 있  
는 대로 뛰어  
넘지 못하  
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뛰어 넘  
기만하면, 앞  
이박히 움직  
이지 못할 경  
우가 있으니,  
넘을 때도 생  
각 없이 뛰어  
넘고 넘어선  
안됩니다.)

☆택지 말고 그려 보십시오☆



**◎병아리 장난감◎**

**만드는 법**

1. 넓이 1cm, 길이 15cm 가  
방의 헝가지를 10개 만듦, 그 중  
5개를 아랫쪽, 5개를 위쪽의  
같은게 뜨게 놓은 다음, 가운데  
와 상 끝에 중점으로 구멍을 뚫  
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소문  
쪽 면 끝의 ①, ②와 ③, ④는  
길이 15cm 가방의 저우로 만듭  
니다.

2. 다음에는 두꺼운 종이 위  
에 그림과 같은 수합, 삼합, 병  
아리 등을 그려서 소면 따운, 아  
랫쪽의 끝을 어긋나게 한뒤라 만  
단히 합니다. (이 병아리꼴을 잘  
느 별관자로 만들면 더욱 좋습니  
다.)

**노는 법**

3. ①과 ②의 저우를 손에 끼  
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 어긋났  
게 한 쪽과 팔은 이끄러 바퀴  
나아갔다 돌러갔다 하는으로,  
아주 유쾌하고 귀엽습니다. 어휘



대 한 매진, 아기와 겨, 귀와 그  
양이, 또겨와 겨북 등으로 장식  
하면 더욱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이 어긋났게한 가운데  
뜨게 부분은, 2cm 가방 잔쪽으  
로 문어지 못을 박은 다음 열었  
다 닫았다 하면, 동그아미를 그  
러미 움직이는으로, 한층 더 재미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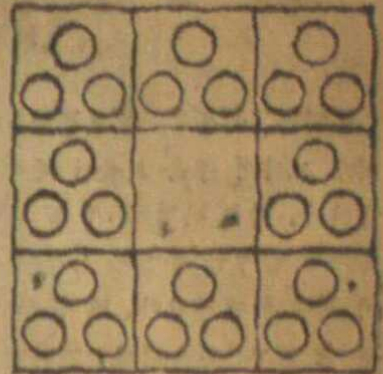
# ★ 의 견 보 기 ★

## ① 보석 상점의 나쁜 점원

어느 보석 상점의 주인이 점원이라는 부장집 부인에게서, 보석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자기 가게 점원에게 보석을 가지고 가게 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중도에서 배내는지 몰치면 큰일이 되고, 상자 속에다 그림과 같이 넣어놓고, 가운데에는 '가로 세

로 어느쪽으로 세어도 9개가 되게 집어넣었습니다.' 라는 편지를 써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부름하는 점원이 한층 더 약아서, 그 중 네 개를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다시 가로 세로 어느 쪽이든 9개가 되게 고쳐 놓은 다음, 시침이를 떼고 가져갔다 하니, 배제 어떻게 한 것일까

요? 대답을 보지않고 맞추어 보십시오. (해답은 28페이지에)



(문) 칙칙박사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공부와 문제가 좀 심했거든요. 아까 그래서 칙칙 재합을 하신 모양이죠? 자아 그럼 반반히 공부하셨죠. 네 생활은 언젠고 하니, 아침에서 일수일을 편 살립니다. 이상아뜻한 생활날 이지요?(경복 안동 김 영순)



자아! 내가 단관복음을 한번 해보려고 밀려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밥을 날으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지요. 그것은 누굴지? 꽤 어리둥절 하시나요? (경기 강화 국민고 8년 오경원)

(답) 요즘도 이상아뜻한 것 없네. 아령고(○) 자를 자제리 물어다보면, 십월(十月) 십일(十日), 그버니까 십일에서 일수일을 백면 살일이 되겠지. 꼭 자제 생활은 살릴 살일. (칙칙박사)

(문) 칙칙박사님, 어더 라나...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 날은 뭐고 한번도 어미를 겪은 적이 없습디다. 내가 무엇일까요? 제 놀라십니까? (서울 덕수고 3년 박정서)

(답) 몸 정신을 차릴줄 알았더니 모두 그로 양이군, 붓(筆) 이지 뭐야. (칙칙박사)



(문) 칙칙박사를 졸업하신 박사 할아버지, 주운 겨울에 졸업시킬 물 얼마나 주우십니까? 단관제 어루어 보겼습디다. 같은 날마다 산수를 열십이 공부하고, 읍은 날마다 천문천공 놀지만 라고, 별은 이따금 얻어맞고는 읍니다. 그런데 읍이가만 있으면, 같이든 별이든 골짜고 못합니다. 이 걸은 대관질 무슨 잡랄까요? (서울 협성고 6년 황은식)

(답) 예씨 이사람! 누구를 소기려고 그러나, 그것은 기동시제지. 같은 시제 바늘, 읍은 시제 추고, 별은 종이고. (칙칙박사)

(문) 박사 할아버지, 그간 기체우 일랑 만장하옵나니까?

(답) 누가 어리둥절 해, 이 까짓 것쯤 문제 없지. 그것은 안과 의사나 안경장수지 뭐야. (칙칙박사)

(문) 칙칙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바다가 있어도 물이 없고, 철도가 있어도 기차가 안러지 못하며, 산은 있어도 나무가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기 순성 국민고 8년 권오영)

(답) 피상 단질! 그러나 알고 보면 지도(地圖)라라지. (칙칙박사)





# 소학생 구락부

## 만들고 나서

▲저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추운 겨울이 딱쳐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국민 학교에 입학한 동생과 날마다 같이 학교에 다닙니다. 제가 "소학생"을 읽고 있노라면, 1학년연대 동생 광순이가, 학교서 배운 한글 지방을 하소하고, 철따랑 수선을 떨며 법석을 부립니다. 이것은 "자"자니 뭐니, 또 이것은 "어머나" 하고 제가 읽는다고 배앗아 가지곤, 나도 "소학생"에 독자라는 뜻이 온 걸안을 붙이타 됩니다. 저는 이번 가을 운동회에 서 육상경기에 일등을 하였습니 다. 그럼 선생님을 안녕히 제십 소. 별번승적 못한 작품 동요 두 편 보냈으니 잘 보여주십소. (경 계도 강화 국민교 6년 김 광순)

▲추운 날자에 "소학생" 전권라 적노와 일따라 수모를 하십노까? 때랄 "소학생"을 받아 본 때마다 볼갑습니다. 저는 동학생인피로 배논지 않고 무부 읽습니다. 참 재미 있고 유익할 것 뿐입니다. 참 저지 부락이 옳은보, 그것은 참 리 다재롭고 화랑화재 특상주 세고, 하여저 수모 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무서없이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서울 경동 중 학 6년 박 동호)

▲여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1호부리 62호"까지 집에 가지고 있는데, 참 재미있고 유

익한 책이라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나도 늘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부락이 있는데, 그것은 좀 값이 오르더라도 저이 지를 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 더욱더 속 작품에 힘쓰겠습니다. (성북 국민교 6의 1 김 학생)

△좋은 말씀입니다. 수만 "소 학생"에 독자의 열렬한 소원을 물어 드리기 위하여, 이번 결월의부 터 저이저 수모 늘고 더 재미있 게 꾸미질 것입니다. (저자)

▲"소학생"을 즐겨주시는 선생 님! 대단히 우회했습니다. 저는 "소학생"을 두근두근 보아오 실 중이 안합니다. 구락부에 온 두 부러는 때랄 재미져 볼니다. 이 때 때를 걸어서 보며 읽어다가 걸보때에 부뎀원 일도 있습니다. 여의 의견을 잘 사담하노 귀화재의 거지는 선생님 안녕히 제십시오. (서울 수송 국민교 4년 최 중 울)

△"소학생"을 재밌게 읽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지만, 권에서 걸으며 읽는다는 것은 좋지 못한 일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결월학부 드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8학년이 되었어도 작공 모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 다. 번 번승적 못한 웃음만자 하나 이번 에 보내오니, 잘 받아 지도하여 주십시오. 여우 작품에 힘쓰겠으 니 안녕히 제십시오. (서울 승배 국민교 6의 2 최 병환)

유행도 벌써 저물어갑니다. 전 제나 항상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세월이란 참으로 빠릅니다. 이제껏 여러 분을 위하여, 정성껏 "소학생"을 꾸미왔다요 믿 고 있었으나, 지나간 유행물 따 시 물이져 생각의 보니, 제갈스형 게 수만 애국가 여러 분께 여하 여, 무한한 부끄러움을 감지 못 합니다. 그러나 한편을 한편을 불만을 깨달으며 나아가는게, 진 보와 발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 "소학생"은, 최망의 세력을 알 두고 더욱 힘이 솟습니다. 제의 정월지는, 모습도 새롭고 더욱도 새롭게 꾸미는 상입니다. 아라여 리 분은 보시고 함께 축하할 것 입니다. 그리고 저이저 수모 8 페이지나 늘고..... 저아! 수만 애국가 여러 분! 다 같이 손잡아 기뻐하십시오. 여러 분들의 희망 에 찬 세력에 부 많이 받으시길

1947년 9월 30일

35호

石重

發行所 兒童

1947年 9月 30日 印刷

서울 鐘路 2街 永源社

電話 [光] 3870 或 3452

總販賣 乙酉文化社

서울 鐘路 2街

서울신문社 印刷局  
1947年 9月 31日 印刷第 74號

그림 \* 백과 \* 사전 \* 6 \* 세계 각국의 교통기관 (설명 29페이지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 20萬圓 현상이 붙은 참고서

4282년 판

## 전과 공부

서울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선생님  
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정성껏 지으신

가장 아름답고 (마카오이)

가장 알기 쉽고

가장 재미 있는

전과 참고서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면 꼭 우등생이 될 수 있  
습니다.

(내용) 국어·사회 생활·과학·산수  
보건·음악·미술·가사·과외  
독본

값 6-2 450원 5-2 450원  
4-2 400원 3-2 250원

4 5 6 학년 용	산 수 공 부	4 5 6 학년 용	과 학 공 부	4 5 6 학년 용	사 회 생 활 공 부	4 5 6 학년 용	국 어 공 부
------------------------	------------------	------------------------	------------------	------------------------	----------------------------	------------------------	------------------

“전과공부”를 학과별로 나누고  
다시 1, 2 학기용을 합본으로 하  
여 아름다운 표지를 붙인 편리  
한 단과 참고서입니다.

한가지에  
값 100원~200원

서울시 을지로 2가

# 학생사

### ★ 아 협 책 ★



소파 동화독본  
다섯 권

그림 매거진  
정현용 그림

황금귀 140원

꿈나라의아리쓰 80원

### — 다시 나오는 책들 —

소파동화독본

1. 까치 옷 값 140원
2. 울지 않는 콩 값 140원
3. 나비의 꿈 값 120원
4. 커덕은 점오리 값 140원

- ★ 박태원 지문 이순실 장군 값 220원
- ★ 김희환 그림 어린 예술가 값 80원
- ★ 정현용 그림 로빈슨·크루소 값 80원
- ★ 김유환 그림 모퉁이 값 80원

102